

政策研究 91-08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李 相 學

1991. 4.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李 相 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序 言

本 研究의 목적은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動向을 파악하여 향후 서비스交易과 관련한 研究와 政策樹立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本 研究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部門別 構造와 動向, 地域別 交易構造 및 交易增加要因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서비스관련 直接投資의 부문별 지역별구조와 최근 동향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서비스交易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다음의 두가지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먼저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經濟發展과 더불어 雇傭 및 附加價値 등에서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는 이른바 경제의 서비스化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따라 國際貿易에서도 서비스부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로 서비스交易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協商과 관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同協商에서는 서비스交易 및 이와 관련된 直接投資의 自由化를 주요의제로 다루고 있다. 同協商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交易 및 관련 직접투자의 현황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와같이 서비스交易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결과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本 研究는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아무쪼록 本 研究結果가 정책당국, 연구기관, 학계는 물론 그외에도 서비스交易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되기를 바란다. 研究의 깊이와 포괄범위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나 이는 서비스交易關聯 統計가 정비되지 않은데다 선행연구결과도 거의 축적되지 못한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이해되기를 바란다.

本 研究는 李相學 博士가 本 研究院에 責任研究員으로 재직중 수행하였으며, 李午景 연구조원은 타자에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끝으로 本 研

究報告書의 모든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本 研究院의 공식견
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1년 4월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 金 迪 教

목 차

| | |
|------------------------------|----|
| I. 序 論 | 11 |
| 1. 研究目的 | 11 |
| 2. 서비스의 定義와 서비스交易 | 12 |
| 3. 서비스交易 統計 | 14 |
| II. 經濟의 서비스化和 서비스交易의 增加 | 17 |
| 1. 세계경제의 서비스化和 서비스交易의 增加 | 17 |
| 2. 서비스交易比重과 상품교역비중간의 연관성 | 21 |
| 3. 해외직접투자의 서비스화 | 24 |
| 4.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化 및 서비스交易의 增加 | 26 |
| 5. 우리나라 서비스産業의 交易性 | 29 |
| III. 서비스交易의 部門別 構造와 推移 | 35 |
| 1. 서비스輸出入 概觀 | 35 |
| 2. 서비스部門別 交易推移 | 38 |
| 3. 서비스輸出의 固定占有率 分析 | 50 |
| 4. 서비스관련 直接投資 推移 | 53 |
| IV. 지역별 서비스交易 構造 | 59 |
| 1. 地域別 서비스交易構造 개관 | 59 |
| 2. 지역별 서비스輸出 結合度 | 63 |

| | |
|----------------------------|--------|
| 3. 서비스交易의 지역집중도 | 65 |
| 4. 對美 서비스交易構造 | 69 |
| 5. 對日 서비스交易構造 | 74 |
| 6. 對 其他地域 서비스交易構造 | 77 |
| V. 研究結果의 요약과 示唆點 | 79 |
| 1. 研究結果의 요약 | 79 |
| 2. 示唆點 | 81 |
| 參考文獻 | 85 |

〈表 目 次〉

| | |
|---|----|
| 〈표 II-1〉 주요국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 18 |
| 〈표 II-2〉 품목별 세계수출 총액 | 20 |
| 〈표 II-3〉 1987년 기준 주요 상업서비스 교역국가 | 22 |
| 〈표 II-4〉 세계 교역부문별 각국의 비중 | 23 |
| 〈표 II-5〉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비중 | 26 |
| 〈표 II-6〉 우리나라의 대외거래 추이 | 28 |
| 〈표 II-7〉 서비스산업의 수요·공급구조 | 31 |
| 〈표 II-8〉 산업별 수출율 | 32 |
| 〈표 II-9〉 산업별 수입계수 | 33 |
| 〈표 II-10〉 산업별 수입의존도 | 33 |
| 〈표 III-1〉 서비스교역 동향 | 37 |
| 〈표 III-2〉 세계 25대 해외여행 거래국 | 39 |
| 〈표 III-3〉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여행 거래선 | 42 |
| 〈표 III-4〉 우리나라의 주요 운수거래선 | 45 |
| 〈표 III-5〉 잡용역교역의 항목별 최근 동향 | 46 |
| 〈표 III-6〉 우리나라의 주요 잡용역 거래선 | 47 |
| 〈표 III-7〉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증가의 고정점유율 분석결과 (1981-1988) | 52 |
| 〈표 III-8〉 우리나라의 연도별·업종별 해외투자 실적 | 55 |
| 〈표 III-9〉 産業別 對韓直接投資 推移 | 56 |
| 〈표 III-10〉 서비스관련 對韓直接投資殘高의 국별·산업별 구성 | 57 |
| 〈표 IV-1〉 서비스輸出入의 지역별점유율 추이 | 60 |
| 〈표 IV-2〉 지역별 서비스수출결합도 추이 | 64 |
| 〈표 IV-3〉 상품 및 서비스교역의 허핀달지수 추이 | 68 |
| 〈표 IV-4〉 부문별 對美交易推移 | 72 |
| 〈표 IV-5〉 對美서비스교역 추이 | 73 |

| | |
|------------------------------|----|
| 〈표 IV-6〉 부문별 對日交易推移 | 75 |
| 〈표 IV-7〉 對日서비스 交易추이 | 76 |
| 〈표 IV-8〉 對其他地域 서비스交易추이 | 78 |

〈圖 目 次〉

| | |
|--|----|
| 〈圖 II-1〉 産業別 附加價值比重 變化推移 (1970-1987) | 19 |
| 〈圖 II-2〉 우리나라의 對外去來 推移 | 29 |
| 〈圖 IV-1〉 商品과 서비스交易 허핀달지수의 연도별 추이 | 69 |



I. 序 論

1. 研究目的

本 研究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서비스交易 및 서비스 관련 直接投資의 構造를 분석하여 서비스교역과 관련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교역의 部門別 構造와 動向, 地域別 交易構造 및 交易增加要因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서비스관련 직접투자의 동향 및 지역별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가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정책과 이에 따른 대외거래의 확대를 발판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60년대 부터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온 商品輸出은 1989년에는 약 62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商品輸入은 615억 달러에 달하여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위권 부근의 교역국의 위치에 이르렀다. 對外去來의 擴大와 더불어 GNP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89년에는 약 2100억 달러의 수준에 달하였다. 이러한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 국내외 연구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對外指向의 經濟政策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商品輸出入構造의 특징 등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다.

한편 서비스부문의 대외거래도 그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여 1989년에는 수출과 수입 각각 약 130억 달러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서비스交易規模는 상품교역의 약 1/5, 그리고 GNP의 약 1/1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비스교역의 국민경제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부문의 교역에 대해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하였으며 연구결과도 거의 축적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非交易財의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서비스교역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로 인하여 교역규모의 신장이 크게 제약되어 있는 동시에

서비스部門의 交易이 實物부분교역을 보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경제가 세계경제의 추세에 발맞추어 서비스화 되고 서비스交易이 국민경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 교역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서비스交易의 自由化가 우루과이라운드 多者間協商에서 主要議題로 등장하는 현시점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은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本 報告書의 구성을 개관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 1장의 나머지부분에서는 서비스의 定義와 교역통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다루었다. 제 2장에서는 세계경제 및 우리경제의 서비스化 推移 및 서비스交易의 신장추이를 개관하였다. 제 3장은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의 부문별 구조 및 동향과 서비스관련 직접투자의 구조에 대하여 분석하고 固定占有率 分析方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증가요인을 분석하였다. 서비스교역의 지역별 구조 및 지역집중도의 추이 등은 제 4장에서 다루어졌다. 제 5장에서는 연구결과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우리나라의 서비스交易構造의 特徵을 요약하고 政策的 示唆點을 제시하였다.

2. 서비스의 定義와 서비스交易

서비스교역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우선 서비스의 정의 및 서비스교역의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서비스의 定義 및 財貨와 구분되는 특징에 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서비스定義는 상품(goods)과 구분되는 서비스의 특징으로서 서비스의 無形性(Intangibility) 및 貯藏不可能性을 강조하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대표적 정의라 할 수 있는 T.P.Hill의 서비스정의에 의하면,(실물)상품은 “경제주체에 의한 占有 및 경제주체간의 移轉이 가능한 物的 對象”으로 정

의되는데 비하여 서비스는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他經濟主體 및 所有物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된다.” 따라서 서비스는 그 정의상 저장성이 불가능하며 서비스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근거리 접촉과 통신이 서비스거래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서비스의 定義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계작업에 있어서는 UN의 國際標準產業分類(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 ISIC)의 4개분야(6에서 9까지)를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는데 학자들간에 거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즉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 창고·보관업, 통신, 보험·금융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 기계 및 장비대여업, 공공서비스 및 국방, 오락 및 문화서비스 등이 서비스産業으로 분류된다.²⁾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 열거된 산업에다 건설 및 전기, 수도, 가스업을 더하여 광의의 서비스산업(혹은 제 3차산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本 研究에서는 연구목적상 실물부문과의 구분이 애매하고 교역가능성이 적은 이들 부문의 교역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단 우리나라의 貿易外去來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建設用役은 서비스交易으로 분류하였다.

서비스의 國際交易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기능적으로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상품교역과 마찬가지로 어느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서비스가 이동됨으로써 서비스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서비스의 국경이동이 근관하여 서비스輸出國 혹은 輸入國에서 去來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³⁾

서비스의 국경이동의 예로는 商品貿易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수, 보험 및 관련 금융서비스, 그리고 사람의 이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객 운송, 통신 등의 서비스등을 들 수 있다. 서비스수출국에서 제공되는 서

1) T.P.Hill, 1977, p. 317.

2) U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 in Services*, 1989, p. 4.

3) 민경휘 외,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92호), 1987, pp. 206~207.

비스로는 관광, 숙박, 의료서비스 등을 들 수 있으며 서비스수입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광고, 회계, 법률, 유통업 등을 들 수 있다.

3. 서비스交易統計

서비스교역의 구조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로는 國際收支統計와 外換受給統計의 貿易外去來 項目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國際收支統計는 일정기간동안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사이의 모든 經濟的 去來를 종합 기록한 표이다. 國際通貨基金(IMF)의 國際收支統計便覽에 의하면 무역 외거래항목은 운임 및 보험, 기타운수, 여행, 투자수익, 공적거래 및 기타 재화 및 용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主要項目別 去來內容을 보면

- ① 운임 및 보험(Shipment)에는 화물운임, 보험 및 기타 유통서비스
- ② 기타운수(Other Transportation)에는 여객운임 및 관련비용, 항만경비 및 용선료
- ③ 여행(Travel)에는 1년 이내 단기간 여행자에 의한 재화 및 용역구매
- ④ 투자수익(Investment Income)에는 외국 금융자산 보유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⑤ 기타 재화 및 용역(Other Goods and Services)에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민간 서비스거래가 기록된다.

이상의 국제수지 대분류항목들에 대해서는 각국이 거의 일치되는 편제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 비교도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國際收支表의 細分類에 있어서는 각국이 처한 고유한 상황등에 따라 국별로 상이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細分類項目까지 國際比較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수지표의 무역외거래는 운임 및 보험, 기타운수, 여행, 투자수익, 기타재화 및 용역으로 분류

4) IMF, *Balance of Payments Manual*, 1977, pp. 87-112.

되어 편제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國際收支의 貿易外去來와 더불어 외환수급통계 중 무역외거래항목을 이용하여 서비스교역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外換受給統計는 일정기간 동안의 외환거래를 플로우개념에 따라 집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외외환수급은 해외여행, 운수(화물운임, 여객운임, 항만경비), 보험, 투자수익, 정부거래, 잡용역, 증여 등의 항목으로 편제되어 국제수지표의 무역외거래보다 좀 더 자세한 항목별 거래내역이 공표된다.

外換受給統計는 국제수지표작성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국제수지표와는 몇가지 점에서 상이하다.⁵⁾

첫째, 포괄범위상 國際收支統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포함하나 외환수급통계는 외환의 受入 및 支給이 수반되는 거래만 기록되므로 물자차관, 물물교환, 현물증여 등 현금지급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와 원화로 결제되는 거래가 제외된다.

둘째, 국제수지통계는 소유권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기록되는데 비하여 외환수급통계는 外國換銀行을 통하여 外換의 受入·支給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되므로 실제거래와의 시차가 존재한다.

셋째, 외환수급통계의 무역외거래에는 증여가 포함되나 국제수지표의 무역외거래에서는 제외된다.

本 研究에서는 국제비교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더 자세한 통계입수가 가능한 외환수급통계를 주로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을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외환수급통계에서는 국제수지통계와는 달리 교역지역별 통계가 입수가 가능한 잇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國際比較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 외환수급통계로부터 지역별 국제수지표를 추계하여 이용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제수지표상의 무역외거래항목과 외환수급통계상

5) 한국은행,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1990, pp. 136~137.

의 무역외거래항목을 비교해보면 1989년의 경우 국제수지기준의 貿易外受入·支給은 각각 126억달러 및 124억달러에 달하고 있고, 외환수급통계상의 外換受入·支給은 각각 129억달러 및 132억달러에 달하여 양 통계간의 격차는 3~6%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여행과 투자수익의 경우는 개념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國際收支統計와 外換受給統計가 일치하여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양 통계가 거의 같은 기준으로 편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제수지통계대신 외환수급통계를 사용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經濟의 서비스化와 서비스交易의 增加

1. 세계경제의 서비스化와 서비스交易의 增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經濟發展과 더불어 雇傭 및 附加價值등에서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는, 이른바 경제의 서비스化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經濟의 서비스化 현상은 특히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주요선진국들의 경우 국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부가가치기준으로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이미 국민총생산의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고용기준으로도 서비스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開發國의 경우에도 다수 국가에서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비중이 이미 50%를 상회하고 있다. 선진국그룹과 후진국그룹을 비교하면 1987년의 경우 선진국 전체의 3차산업 비중이 63%에 이르러 개도국 전체의 49%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경제발전단계와 경제의 서비스化 진전도 사이에 正의 相關關係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産業構造의 시계열추이를 보면 선진국의 산업구조는 1970~1987 기간중 1차 및 2차산업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3차산업의 비중이 55%에서 63%로 크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開發國그룹은 기간중 1차산업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면서 2차산업과 서비스産業의 비중이 모두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와같이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커지는 주요인은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産業構造變化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가라 할 수 있는 C. Clark와 A. G. B. Fisher에 의하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산업별 수요의 所得彈力性의 격차에 따라 산업의 중점이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그리고 다시 서비스산업으로 옮겨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을 Clark-Fisher가설이라 칭하는데 <표 II-1>은 Clark-Fisher 가설이 실제통계와 대체적으로 부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⁶⁾

〈表 II-1〉 주요국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 (1970년-1987년)

(%)

| | 1차산업 | | 2차산업 | | 3차산업 | |
|------|------|------|------|------|------|------|
| | 1970 | 1987 | 1970 | 1987 | 1970 | 1987 |
| 선진국 | 4 | 3 | 41 | 35 | 55 | 63 |
| 캐나다 | 4 | 2 | 34 | 35 | 62 | 62 |
| 프랑스 | 6 | 4 | 38 | 31 | 55 | 66 |
| 서독 | 3 | 2 | 53 | 38 | 44 | 60 |
| 일본 | 6 | 3 | 47 | 41 | 47 | 57 |
| 영국 | 2 | 2 | 38 | 38 | 59 | 60 |
| 미국 | 3 | 2 | 35 | 30 | 62 | 68 |
| 개도국 | 24 | 15 | 31 | 36 | 45 | 49 |
| 브라질* | 12 | 11 | 39 | 38 | 51 | 51 |
| 인디아 | 47 | 30 | 22 | 30 | 31 | 40 |
| 한국 | 26 | 11 | 29 | 43 | 45 | 46 |
| 멕시코* | 12 | 9 | 32 | 34 | 55 | 57 |
| 싱가포르 | 2 | 1 | 30 | 38 | 67 | 62 |
| 대만 | 16 | 5 | 41 | 44 | 42 | 51 |

자료 : GATT, *International Trade 8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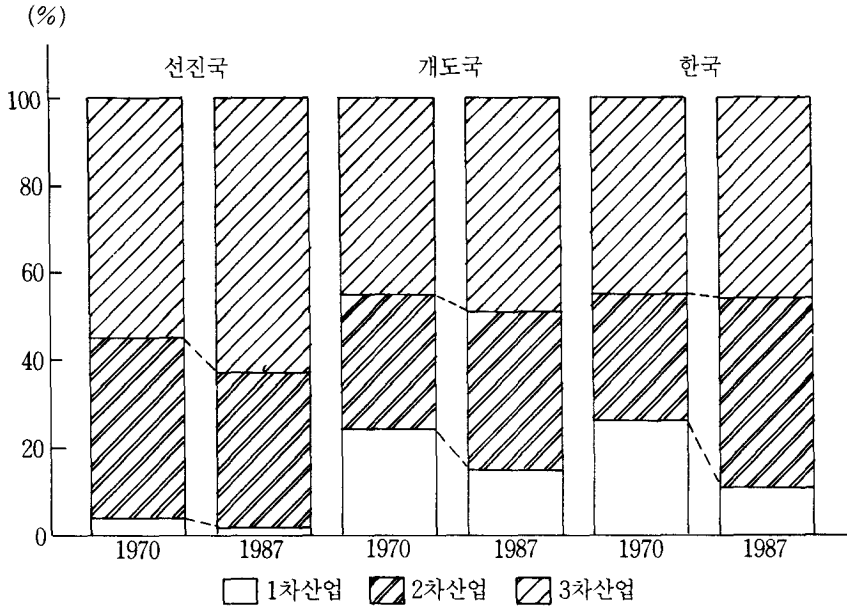
* : 1987년 통계는 1985년 수치임.

한편 세계경제가 서비스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서비스의 國際交易도 그간 착실히 신장추세를 지속해 왔으며 그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다. GATT의 추계에 의하면 1988년도의 세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규모는 각각 2조 8,800억달러 및 6,000억 달러를 기록하여 서비스交易額이 상품교역액의 약 2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서비스교역중 운

6) S. Park and K. S. Chan, "A Cross-country Input-Output Analysis of Intersectoral Relationships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s and their Employment Implications", *World Development* Vol. 17, No. 2., 1989, pp. 199~200.

7) GATT, Press Release(1990. 3. 14), 장의태(다자간 서비스협상과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국제화, 1990, p.21)에서 재인용.

〈圖 II -1〉 産業別 附加價值比重 變化推移 (1970-1987)



수, 여행, 기타서비스의 합계를 상업서비스(Commercial Services)라 부르는데 1988년의 경우 약 5,600억달러를 기록하여 서비스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의 서비스교역액은 統計數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GATT는 예측하고 있다. 이는 통계집계상의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서비스交易規模가 과소집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서비스교역의 특성상,

- ① 東歐圈國家등 일부국가의 경우 서비스교역통계의 전체내지 일부항목을 집계에서 제외하며
- ② 서비스거래의 無形性에 따라 서비스거래가 통계집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며
- ③ 전체서비스거래 대신 純서비스去來額이 집계되는 경우가 있고
- ④ 일부서비스거래의 경우 상품수출입 통계로 분류되어 집계되는 경

우가 있기 때문 등의 이유로 서비스交易規模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다.

〈表 II-2〉

품목별 세계수출총액

(단위 : 10억불, 경상가격)

| | 1987 | 1988 |
|-----------|-------|-------|
| 농산물 | 340 | 390 |
| 광산물 | 365 | 370 |
| 공산품 | 1,750 | 2,050 |
| 합 계 | 2,530 | 2,880 |
| 서비스수출 | 530 | 600 |
| (상업서비스수출) | (505) | (560) |

자료 : GATT, International Trade '88-'89

——, Press Release(90. 3. 14)

서비스交易이 확대되는 주원인은 무엇보다도 세계경제의 상호의존도 심화와 서비스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⁸⁾ 즉 각국경제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國際去來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며 이것이 서비스교역증가로 연결된다. 일례로서 생산의 汎世界化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전세계를 연결하는 국제통신 및 수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곧 서비스교역증가로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로, 經濟構造의 서비스화에 따라 중간투입재의 역할을 하는 상업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는 自國內 서비스産業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서비스교역 증가로 연결된다. 셋째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수요자 및 공급자의 국제이동 없이도 서비스의 國際去來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서비스교역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서비스교역과 관련한 최근의 주요한 현상은 海外直接投資

8) 자세한 설명은 장의태(1990, pp. 20~24)를 참조할 것.

(Foreign Direct Investment:FDI)의 서비스化 현상이다. 기술,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의 國際移動을 수반하는 직접투자는 서비스 부문의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GATT의 추계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 전세계 직접투자잔고의 약 40%가량은 서비스관련 직접투자인데 비하여 直接投資 純增加分の 경우 약 50%가량이 서비스관련 직접투자로서 직접투자가 점차 서비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⁹⁾

2. 서비스交易比重과 商品交易比重間의 聯關性

이제 세계의 주요 서비스교역국별로 서비스교역비중과 상품교역비중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表 II-3>은 세계의 주요 서비스 수출국 및 수입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프랑스, 영국, 서독, 일본 등의 국가가 서비스수출 및 서비스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들 국가들은 상품수출입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각국의 서비스교역규모와 상품교역규모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表 II-4>는 주요국별 상품 및 서비스교역의 세계시장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각국의 서비스(상품) 교역비중은 전세계 서비스(상품) 수출입총액에서 각국의 서비스(상품) 수출입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表 II-4>에서 제 3행 X+M의 占有率은 단순히 제 1행의 수출점유율과 제 2행의 수입점유율을 합한 것이다. 전세계 수출총액과 전세계 수입총액이 거의 일치하므로 제 3행의 수치를 2로 나누면 각국의 대략적인 세계교역점유율을 구할수 있다. 제 4행과 5행은 각각 서비스수출 및 수입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비중이다. 제 6행은 제4행과 5행의 합으

9) GATT, *International Trade 88-89*, pp. 41~42.

로서 商品交易에서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제 6행의 수치도 2로 나누면 각국의 세계 서비스交易 占有率이 된다. 제 7행은 각국의 세계 서비스교역 점유율과 상품교역 점유율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4〉에서 우리는 두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이미 지적했듯이 각국의 商品交易 占有率과 서비스交易 占有率間에 강

〈表 II-3〉 1987年 基準 主要 尙業서비스交易國家

(單位:美貨 10억불 : %)

| 순위 | 輸 出 | | | 輸 入 | | |
|----|------------|----|------|------------|----|------|
| | 國 家 | 金額 | 占有率 | 國 家 | 金額 | 占有率 |
| 1 | 미 국 | 56 | 11.2 | 서 독 | 64 | 12.4 |
| 2 | 프 랑 스 | 53 | 10.6 | 미 국 | 56 | 10.8 |
| 3 | 영 국 | 43 | 8.6 | 일 본 | 52 | 10.1 |
| 4 | 서 독 | 41 | 8.2 | 프 랑 스 | 43 | 8.3 |
| 5 | 이 탈 리 아 | 33 | 6.5 | 영 국 | 33 | 6.4 |
| 6 | 일 본 | 28 | 5.5 | 이 탈 리 아 | 26 | 5.0 |
| 7 | 네 델 란 드 | 23 | 4.5 | 네 델 란 드 | 23 | 4.5 |
| 8 | 스 페 인 | 22 | 4.3 | 벨기에 / 룩셈부룩 | 17 | 3.3 |
| 9 | 벨기에 / 룩셈부룩 | 19 | 3.8 | 캐 나 다 | 16 | 3.1 |
| 10 | 오스트리아 | 15 | 2.9 | 스 위 스 | 12 | 2.3 |
| 11 | 스 위 스 | 14 | 2.8 | 스 웨 덴 | 10 | 2.0 |
| 12 | 캐 나 다 | 11 | 2.1 | 노 르 웨 이 | 10 | 1.8 |
| 13 | 스 웨 덴 | 9 | 1.7 | 사우디아라비아 | 9 | 1.8 |
| 14 | 노 르 웨 이 | 8 | 1.7 | 오스트리아 | 9 | 1.8 |
| 15 | 한 국 | 8 | 1.7 | 스 페 인 | 8 | 1.6 |
| 16 | 덴 마 크 | 8 | 1.5 | 호 주 | 8 | 1.5 |
| 17 | 싱 가 폴 | 7 | 1.5 | 덴 마 크 | 7 | 1.4 |
| 18 | 홍 콩 | 7 | 1.4 | 타 이 완 | 6 | 1.0 |
| 19 | 멕 시 코 | 7 | 1.3 | 한 국 | 5 | 1.0 |
| 20 | 호 주 | 5 | 1.0 | 홍 콩 | 5 | 1.0 |

자료 : GATT, *International Trade*, '88-'89

<表 II-4> 世界交易部門別 各國의 比重

(%)

| | 상 품 수 출 (X)* | 상 품 수 입 (M)* | (X+M) (B) | 서비스수출** (R) | 서비스수입** (P) | (R+P) (A) | A / B |
|-----------------|--------------------------|--------------------------|--------------|----------------|----------------|--------------|-------|
| 미 국 | 11.1 | 15.4 | 26.5 | 11.2 | 10.8 | 22.0 | 0.8 |
| 일 본 | 9.2 | 6.3 | 15.5 | 5.5 | 10.1 | 15.6 | 1.0 |
| 서 독 | 11.2 | 8.4 | 19.6 | 8.2 | 12.4 | 20.4 | 1.0 |
| 영 국 | 5.1 | 6.4 | 11.5 | 8.6 | 6.4 | 15.0 | 1.3 |
| 프 랑스 | 5.8 | 6.0 | 11.8 | 10.6 | 8.3 | 18.9 | 1.6 |
| 이 탈 리 아 | 4.5 | 4.6 | 9.1 | 6.5 | 5.0 | 11.5 | 1.3 |
| 캐 나 다 | 4.0 | 3.8 | 7.8 | 2.1 | 3.1 | 5.2 | 0.7 |
| 네 델 란 드 | 3.6 | 3.3 | 6.9 | 4.5 | 4.5 | 9.0 | 1.3 |
| 벨 기 에 / 룩셈부룩 | 3.2 | 3.1 | 6.3 | 3.8 | 3.3 | 7.1 | 1.1 |
| 홍 콩 | 2.2 | 2.2 | 4.4 | 1.4 | 1.0 | 2.4 | 0.6 |
| 스 페 인 | 1.4 | 2.0 | 3.4 | 4.3 | 1.6 | 5.9 | 1.7 |
| 스 위 스 | 1.8 | 1.9 | 3.7 | 2.8 | 2.3 | 5.1 | 1.4 |
| 한 국 | 2.1 | 1.7 | 3.8 | 1.7 | 1.0 | 2.7 | 0.7 |
| 대 만 | 2.1 | 1.7 | 3.8 | 0.9 | 1.0 | 1.9 | 0.5 |
| 스 웨 덴 | 1.7 | 1.5 | 3.2 | 1.7 | 2.0 | 3.7 | 1.2 |
| 싱 가 포 르 | 1.4 | 1.5 | 2.9 | 1.5 | 0.9 | 2.4 | 0.8 |
| 호 주 | 1.1 | 1.2 | 2.3 | 1.0 | 1.5 | 2.5 | 1.1 |
| 멕 시 코 | 1.1 | 1.0 | 2.1 | 1.3 | 0.9 | 2.2 | 1.1 |
| 오스트리아 | 1.1 | 1.2 | 2.3 | 2.9 | 1.8 | 4.7 | 2.0 |
| 덴 마 크 | 1.0 | 0.9 | 1.9 | 1.5 | 1.4 | 2.9 | 1.5 |

자료 : GATT, *International Trade 88-89*.

* 1988년 기준

** 1987년 기준.

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서비스교역 점유율 / 상품교역 점유율)의 비율이 1 내외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同比率이 1에 가까운 것은 상품교역과 서비스교역이 비교적 균형된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서비스交易規模를 결정하는 요인이 상품교역규모를 결정하는 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유추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시아 신흥공업국, 즉 홍콩, 우리나라, 대만, 싱가포르의 경우는 모두 同比率이 1이하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新興工業國들의 경우 이와같이 상품교역에 비한 서비스교역의 비중이 낮은 것은, 상품교역의 증가에 비하여 여러가지 규제 및 비교열위 등에 의하여 서비스교역의 신장세가 완만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世界交易의 측면에서는 이들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의 경우 상품교역 점유율이 세계교역에서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실제의 교역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3. 海外直接投資의 서비스化¹⁰⁾

저장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근거리접촉이 불가결한 서비스거래의 특성상 직접투자로 설립된 海外現地法人 혹은 支社를 통한 서비스거래는 간접적인 형태의 서비스交易으로서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교역과 관련하여 최근 세계의 海外直接投資(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의 주요한 특징은 서비스관련 직접투자의 비중이 커지는, 즉 직접투자내역이 서비스화 하는데 있다. 제 2차대전 직후인 1950년대에는 광산개발 등 자원개발 및 제조업부문에서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서비스관련 직접투자의 비중은 20%를 밑돌

10) 本節의 내용은 U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 in Services 1989*, pp. 7~33에 기초하고 있음.

있다. 同比率은 1970년대 초반에는 약 1/4 정도였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세계경제가 서비스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전세계의 서비스관련 海外直接投資殘高는 약 3,000억달러로서 총 해외투자 잔고(약 7000억달러)의 약 40%를 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80년대 중반 연평균 약 500억달러에 달하는 新規 海外直接投資의 50% 정도는 서비스 관련투자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서비스관련 신규해외직접투자의 약 2/3 정도는 金融 및 貿易關聯 投資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간에는 이미 서비스 관련 직접투자가 投資의 主種을 이루고 있으며 對開途國 直接投資도 서비스화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향후 해외직접투자 흐름에서도 서비스關聯投資가 主種을 이룰 것으로 UN은 예측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특히 선진국의 서비스관련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서비스관련 對外直接投資殘高는 1977~1986년 기간중 배증되었으며 일본과 서독의 서비스關聯 直接投資도 1970년대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등 5개국의 직접투자 잔고총액은 전세계 총액의 약 70%를 점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의 直接投資殘高의 50% 이상이 서비스관련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서비스의 현지판매와 직접적인 서비스교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경우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출 내지 수입보다도 서비스의 현지판매를 통한 간접적인 서비스교역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즉 1982년의 경우 미국의 서비스수출과 수입이 각각 320억 달러 및 330억달러인데 비하여 미국계 해외현지법인의 서비스賣出은 약 1830억달러, 그리고 외국계 현지법인의 미국내 서비스賣出은 약 1250억달러에 달하여 직접투자를 통한 間接的의 交易의 規模가 서비스직접교역의 약 5배규모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분야별로 해외직접투자의 상대적 중요도에 격차가 있는데, 리스업(leasing), 광고업, 투자금융업, 회계, 보험, 정보처리, 엔지니어링 및 소매업의 경우에는 주

로 직접투자를 통하여 國際去來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행, 라이선스대여업, 교육, 법률서비스등의 경우는 서비스直接輸出의 비중이 크다. 서독의 경우에는 직접투자를 통한 거래와 직접교역의 비중이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84년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서비스販賣는 650억 마르크 수준이고 서비스수출은 약 570억마르크에 달하고 있다. 한편 주요선진국의 경우 직접투자의 서비스化가 지속된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직접투자를 통한 間接交易의 중요성은 최근들어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4. 우리나라 經濟의 서비스化 및 서비스交易 增加

우리나라 경제도 세계경제의 추세와 같이 産業構造가 附加價値 및 就業構造面에서 서비스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요면에서도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산업의 國內總生産額(GDP)에 대한 비중은 1975년의 41.0%에서 1989년에는 45.8%로 증가하였으며 취업구조면에서는 전산업 취업자중 서비스산업 취업자의 비중이 1975년의 34.1%에서 1989년에는 45.8%로 증가하였다.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서비스需要의 비중은 1975년의 28.9%에서 1985년에는 34.9%로 높아졌다.

〈표 II-5〉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의 비중

| | 1975 | 1980 | 1985 | 1989 |
|---------------|------|------|------|-------|
| GDP중 서비스산업 비중 | 41.0 | 44.1 | 45.4 | 45.8* |
| 최종수요중 서비스 비중 | 28.9 | .. | 34.9 | .. |
| 서비스산업 취업자 비중 | 34.1 | 39.5 | 44.5 | 45.8 |

* :잠정치

자 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한편 우리나라의 서비스交易規模도 경제규모의 확대와 상품교역의 증가 등 양적인 팽창요인외에 서비스産業의 交易性(tradability) 增加에 따라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다. 貿易外外換去來 기준으로 貿易外外換受入(이하 廣義서비스輸出)은 1970년대 초반의 약 5억달러 수준에서 1989년에는 약 129억달러 수준으로 급증하였으며 1970년에 2억달러를 조금 웃돌던 무역외외환지급(이하 廣의서비스수입)은 1989년에는 132억달러로 증대되었다. <表 II-6>은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 및 상품교역의 1971년 이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 서비스교역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1970년대에는 廣의서비스교역의 증가속도가 상품교역의 증가속도를 앞질렀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상품교역의 증가속도가 廣의서비스교역 增加速度를 웃도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교역의 증가속도는 중동 건설경기에 크게 영향받은 것이다. 즉 제 2차 석유파동을 전후하여 중동에서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용역수출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의 건설경기의 퇴조에 따라 1980년대중에는 서비스교역 증가세가 상품교역 증가세를 밀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廣의서비스교역의 상품교역에 대한 비율은 <표 II-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1년의 약 23%에서 1982년의 약 32%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가 그 이후 감소로 돌아서 1989년에는 약 21%수준에까지 떨어졌다.

廣의서비스교역의 경상GNP에 대한 비율은 1971년의 8.2%에서 점차 높아져 1981년에 20.8%까지 다다랐으나 이후 감소세로 반전하여 1989년에는 12.4%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용역수출을 제외한 서비스교역은 기간 중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건설용역을 제외한 잡용역과 해외여행, 운수, 보험의 합계(<표 II-6>의 F항목)의 경상GNP에 대한 비율을 계산해 보면 동비율은 80년대중 지속적으로 8~9%수준을 기록하여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이는 海外建設 및 外債利子支給 등을 제외한 서비스교역부문이 기간중 경상 GNP와 같은 속도로 성장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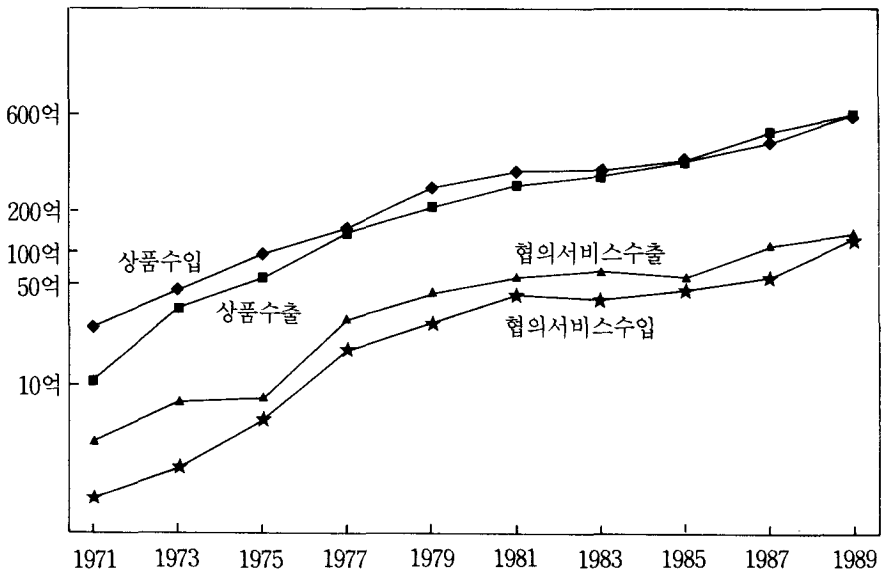
〈표 II -6〉 우리나라의 대외거래 추이

(단위 : 백만불, %)

| | 1971 | 1973 | 1975 | 1977 | 1979 | 1981 | 1983 | 1985 | 1987 | 1989 |
|------------------|--------|--------|---------|---------|---------|---------|---------|---------|---------|----------|
| 상품수출(X) | 1067.6 | 3225.0 | 5081.0 | 10046.5 | 15055.5 | 21253.8 | 24445.1 | 30283.1 | 47280.9 | 62377.2 |
| 상품수입(M) | 2394.3 | 4240.3 | 7274.4 | 10810.5 | 20338.6 | 26131.4 | 26192.2 | 31135.7 | 41019.8 | 61464.8 |
| X + M (=A) | 3461.9 | 7465.3 | 12355.4 | 20857.0 | 35394.1 | 47385.2 | 50637.3 | 61418.8 | 88300.7 | 123842.0 |
| 광의서비스수출(R) | 486.6 | 936.3 | 992.0 | 3098.0 | 4824.5 | 6328.5 | 6831.5 | 6637.4 | 10430.6 | 12929.5 |
| 광의서비스수입(P) | 294.5 | 483.2 | 1083.3 | 2354.1 | 4097.3 | 7561.6 | 7197.8 | 8425.6 | 8941.5 | 13228.3 |
| R + P (=B) | 781.1 | 1419.5 | 2030.3 | 5452.1 | 8921.8 | 13890.1 | 14029.3 | 15063.0 | 19372.1 | 26157.8 |
| D=B (정부거래, 증여) | 466.3 | 1073.6 | 1660.7 | 4872.5 | 8024.9 | 12829.5 | 12725.9 | 13642.6 | 16871.7 | 22683.4 |
| F=D (투자수익, 해외건설) | .. | .. | .. | .. | 3651.8 | 7673.3 | 11447.8 | 6832.2 | 7673.3 | 17862.5 |
| 경상GNP (C) | 9,483 | 13,498 | 20,942 | 36,790 | 61,482 | 66,828 | 79,524 | 89,702 | 128,919 | 210,114 |
| B / A (%) | 22.6 | 19.0 | 16.4 | 26.1 | 25.2 | 29.3 | 27.7 | 24.5 | 21.9 | 21.1 |
| B / C (%) | 8.2 | 10.5 | 9.7 | 14.8 | 14.5 | 20.8 | 17.6 | 16.8 | 15.0 | 12.4 |
| D / C (%) | 4.9 | 8.0 | 7.9 | 13.2 | 13.1 | 19.2 | 16.0 | 15.2 | 13.1 | 10.8 |
| F / C (%) | .. | .. | .. | .. | 5.9 | 9.1 | 8.6 | 8.6 | 8.9 | 8.5 |
| F / A (%) | .. | .. | .. | .. | 10.3 | 12.8 | 13.5 | 12.5 | 13.0 | 14.4 |

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總交易에 대하여 동비율을 계산해 보면 79년의 10.3%에서 1989년에는 14.4%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서비스교역의 안정적 성장기조가 1980년대중에도 지속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圖 II-2〉 우리나라의 對外去來 推移*



* 종축은 로그눈금으로 그려졌음.

5.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交易性(Tradability)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서비스 교역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는데 본절에서는 그 주요요인의 하나인 서비스산업의 交易性(tradability)의 증가추이를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서비스부문의 총수요중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서비스부문의 총공급중 서비스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및 양비중의 합계, 즉 서비스

산업의 교역의존도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또한 서비스 각 산업별로 총산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수출율)을 이용하여 서비스 산업별로 수출구조를 비교하고 총 공급액에 대한 수입의 비중을 나타내는 수입계수와 국내 총산출에 대한 수입중간재의 투입비율인 수입의존도를 이용하여 서비스 산업별로 수입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總需要·總供給構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수출과 수입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에 비해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 비중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서비스산업의 교역성(tradability)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¹⁾ 1985년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총 공급액중 약 3%는 해외로부터의 수입이며 따라서 총 서비스공급액의 약 97%는 국내로부터 공급되었다. 총 수요측면에서는 1985년도의 경우 약 9%가 수출수요이며 나머지 약 91%는 국내에서 소비되었다. 서비스 산업의 교역의존도는 수출비중과 수입비중의 합계로 정의할 수 있는데 동 교역의존도는 1970년도에는 약 7%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에는 약 12% 수준에까지 다다랐다. 이는 일본(1985년도)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며 대만(1984년)보다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산업의 총수요·총공급구조에서 지적할 수 있는 특징은 서비스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보다 서비스 총공급에서 차지하는 수입의 비중이 크게 낮은 사실이다. 서비스 산업의 전반적인 교역성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수출비중과 수입비중의 절대격차는 6%포인트 수준에서 크게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1)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경우 1980년과 1985년 사이에 서비스의 교역성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1985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1975-1980-1985년 접속불변산업연관표(한국은행, 1989)에서는 동기간중에도 수출율과 수입계수가 모두 증가하여 서비스의 교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7〉

서비스산업의 수요·공급구조

(단위, %)

| | 공 급 | | 총공급 = 총수요 (A+B)=(C+D) | 수 요 | | 교역의존도 (B+D) |
|--------------|------------------|-----------|-----------------------------|-----------------|------------|----------------|
| | 국내 총산출 (A) | 수입 (B) | | 국내수 요 (C) | 수 출 (D) | |
| 1970 | 99.6 | 0.4 | 100.0 | 93.3 | 6.7 | 7.1 |
| 1975 | 98.2 | 1.8 | 100.0 | 91.9 | 8.1 | 9.9 |
| 1980 | 96.8 | 3.2 | 100.0 | 90.0 | 10.0 | 13.2 |
| 1985 | 96.9 | 3.1 | 100.0 | 90.9 | 9.1 | 12.2 |
| 일본 (1985) | 98.2 | 1.8 | 100.0 | 97.1 | 2.9 | 4.7 |
| 대만 (1984) | 91.8 | 8.2 | 100.0 | 90.4 | 9.6 | 17.8 |

자료: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호.

나. 輸出構造

서비스산업의 總産出額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수출율)을 이용하여 서비스산업의 수출구조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먼저 서비스산업의 수출율은 서비스 각 산업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종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수출율이 전산업평균은 물론 제조업의 평균수출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이들 산업에서 수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수출율도 70년대 중에는 전산업평균 수준을 크게 밑돌았지만 그 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85년에 이르러서는 전산업평균과 비슷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표 II-8〉

산업별 수출율

(단위 : %)

| 산 업 | 1975 | 1980 | 1985 |
|-----------------------|------|------|------|
| 농림어업 | 5.8 | 5.6 | 3.8 |
| 제 조 업 | 18.2 | 19.2 | 22.5 |
| 서비스산업 | 8.1 | 10.0 | 9.1 |
| 도 소매 및 음식 숙박업 | 9.2 | 12.2 | 13.4 |
| 운수·창고·통신업 | 21.8 | 30.5 | 27.3 |
|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1.5 | 1.6 | 1.4 |
| 기타 서비스업 | 0.4 | 0.2 | 1.0 |
| 전산업 평균 | 12.4 | 13.3 | 14.5 |

* 수출율 = (수출액 / 총산출액) × 100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의 3차산업 현황과 발전방향(1989. 10), 이하 같음.

다. 輸入構造

총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수입액의 비중 즉, 수입계수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교류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서비스산업 전체적으로는 수입계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그 절대수준은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농림어업 및 제조업에 비하여는 크게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輸入係數는 상승하는 추세를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으나 여타 서비스산업의 경우는 뚜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운수·창고 및 보험업의 수입계수는 다른 서비스산업 업종의 수입계수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이들 업종의 수요 및 공급의 양측면에서 대외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내 총산출에 대한 수입중간재

의 투입비율인 수입의존도를 살펴보면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수입계수가 1980년대들어 전산업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외에 여타 서비스부문의 수입의존도는 전산업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표 II-9> 산업별 수입계수

(단위 : %)

| 산 업 | 1975 | 1980 | 1985 |
|-----------------------|------|------|------|
| 농림어업 | 15.3 | 19.0 | 14.5 |
| 제 조 업 | 18.3 | 16.6 | 15.9 |
| 서비스산업 | 1.8 | 3.2 | 3.1 |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0.4 | 2.0 | 2.6 |
| 운수·창고·통신업 | 3.3 | 7.8 | 6.9 |
|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2.0 | 0.8 | 1.3 |
| 기타 서비스업 | 0.3 | 0.8 | 1.4 |
| 전산업 평균 | 14.7 | 14.8 | 13.2 |

* 수입계수=(총수입액 / 총공급액)× 100

<표 II-10> 산업별 수입의존도

(단위 : %)

| 산 업 | 1975 | 1980 | 1985 |
|-----------------------|------|------|------|
| 농림어업 | 2.4 | 2.2 | 1.8 |
| 제 조 업 | 21.9 | 22.7 | 21.7 |
| 서비스산업 | 3.3 | 7.0 | 4.7 |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1.0 | 2.2 | 1.8 |
| 운수·창고·통신업 | 7.1 | 16.5 | 12.0 |
|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2.1 | 0.7 | 1.2 |
| 기타 서비스업 | 3.1 | 2.1 | 1.1 |
| 전산업 평균 | 12.8 | 14.2 | 12.9 |

* 수입의존도=(수입중간재투입액 / 총공급액)× 100



Ⅲ. 서비스交易의 部門別 構造와 推移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 및 서비스관련 직접투자의 구조와 1970년대이후 추이를 살펴보고 서비스수출 증가요인을 固定占有率分析(Constant Market Share Analysis : CMS)방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1절에서 서비스수출입 전반에 대하여 개관한 뒤 제 2절에서는 서비스교역 각 항목별로 구조와 추이를 살펴보았다. 제3절은 固定占有率分析方法을 이용하여 1981-88기간중의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의 증가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제4절은 서비스관련 직접투자의 추이를 다루고 있다.

1. 서비스 수출입 개관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출은 貿易外外換受入(광의서비스수출) 기준으로, 1970년에는 약 5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89년에는 약 129억달러를 기록하여 기간중 약 26배의 크기로 증가하였다. 이는 경상 GNP와 비슷한 증가속도를 기록한 것이다. 서비스수입은 貿易外外換支給 기준으로 1970년에는 2억 달러를 조금 웃돌았으나, 1989년에는 132억 달러를 넘어서 1970년 대비 60배가 넘는 규모로 증가하였다. 광의서비스수지는 1970년대에는 대체적으로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1987, 1988년을 제외하고는 투자수익 지급의 급증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자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서비스교역 항목중 실제 교역활동과 관계가 적다고 생각되는 증여 및 투자수익 관련의 貿易外 受入·支給 항목을 제외한 해외여행, 운수, 보험, 정부거래 및 잡용역의 합계(이하 협의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을 비교한 수지는 1970년대와 1980년대중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하여 경상수지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¹²⁾

가. 서비스輸出

1970-80년대중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출에서는 중동건설 경기의 변동에 따른 1970년대 후반의 잡용역 수출의 급증과 1980년대의 정체가 가장 큰 특징으로 드러난다. 즉 1971년에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잡용역 수출은 건설용역수출의 호조에 따라 1979년에는 약 2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협의서비스수출의 60%를 상회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중동건설 경기가 퇴조함에 따라 잡용역 수출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1989년에는 전체 협의서비스수출의 약 2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단, 해외건설 용역을 제외한 기타 잡용역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 2 절 참조). 외국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수출을 나타내는 해외여행항목은 1981년에는 협의서비스에서 약 9%를 차지하는데 불과했으나 1980년대중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높아져서 1989년에는 서비스거래의 약 35%에 달하는 비중을 점하고 있다. 한편, 정부거래항목은 1970년대 초반에는 협의서비스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동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 서비스 수입

서비스 수입에서는 운수 및 잡용역이 1970년대와 80년대 공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989년의 경우 양부문은 전체 서비스 거래의 약 68%를 점하고 있다. 서비스 수입에서 차지하는 政府去來의 비중은 서비스 수출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80년대 들어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와 함께 해외여행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1989년의 경우, 전체 서비스 수입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12) 일부 서비스交易 研究에서는 투자수익관련 무역외수입·지급을 서비스교역으로 취급하고 있다. 예로서 Kim(1989)을 참조할 것.

<표 Ⅲ-1>

서비스교역 동향

(단위: 백만불, %)

| | 1971 | 1973 | 1975 | 1977 | 1979 | 1981 | 1983 | 1985 | 1987 | 1989 |
|-------------------|-----------------|-----------------|-----------------|------------------|------------------|------------------|------------------|------------------|------------------|------------------|
| 협의서비스수출(A) | 409.7 | 770.6 | 804.3 | 2689.6 | 4054.6 | 5158.4 | 5672.9 | 5205.5 | 8399.6 | 10097.6 |
| 여 행 | 31.2 (7.6) | 264.1 (34.3) | 147.6 (18.4) | 370.0 (13.8) | 326.0 (7.8) | 447.6 (8.7) | 596.2 (10.5) | 784.3 (15.1) | 2299.2 (27.4) | 3556.4 (35.2) |
| 운 수 | 46.5 (11.3) | 147.1 (19.1) | 264.7 (32.9) | 400.2 (14.9) | 804.0 (19.4) | 1517.3 (29.4) | 1679.7 (29.6) | 1552.6 (29.8) | 1941.1 (23.1) | 2580.2 (25.6) |
| 보 험 | 6.0 (1.5) | 10.6 (1.4) | 5.1 (0.6) | 23.0 (0.9) | 42.9 (1.0) | 41.8 (0.8) | 57.9 (1.0) | 26.6 (0.5) | 87.3 (1.0) | 105.1 (1.0) |
| 정부거래 | 238.0 (58.1) | 185.3 (24.0) | 156.9 (19.5) | 238.3 (8.9) | 408.3 (9.8) | 352.6 (6.8) | 487.8 (8.6) | 542.4 (10.4) | 849.0 (10.1) | 986.2 (9.8) |
| 잡 용 역 | 88.0 (21.5) | 163.5 (21.2) | 230.0 (28.6) | 1658.1 (61.6) | 2573.4 (61.9) | 2799.1 (54.3) | 2851.3 (50.3) | 2299.6 (44.2) | 3223.0 (38.4) | 2869.7 (28.4) |
| 협의서비스수입(B) | 172.6 | 275.3 | 586.3 | 1677.6 | 2609.4 | 3866.9 | 3723.4 | 4335.6 | 5260.0 | 9282.8 |
| 여 행 | 14.8 (8.6) | 17.1 (6.2) | 30.7 (5.2) | 102.7 (6.1) | 405.3 (15.5) | 439.0 (11.4) | 555.4 (14.9) | 606.0 (14.0) | 704.2 (13.4) | 2601.4 (28.0) |
| 운 수 | 66.3 (38.4) | 140.1 (50.9) | 316.6 (54.0) | 640.7 (38.2) | 1018.2 (39.0) | 1930.7 (49.9) | 1691.7 (45.4) | 1717.5 (39.6) | 2360.2 (44.9) | 3190.3 (34.4) |
| 보 험 | 8.2 (4.8) | 16.0 (5.8) | 29.5 (5.0) | 46.3 (2.8) | 66.6 (2.6) | 92.4 (2.4) | 104.1 (2.8) | 127.6 (2.9) | 111.5 (2.1) | 153.1 (1.6) |
| 정부거래 | 25.4 (14.7) | 33.0 (12.0) | 59.5 (10.1) | 56.1 (3.3) | 94.5 (3.6) | 185.4 (4.8) | 138.6 (3.7) | 127.3 (2.9) | 162.9 (3.1) | 208.9 (2.3) |
| 잡 용 역 | 57.9 (33.5) | 69.1 (25.1) | 150.0 (25.6) | 831.8 (49.6) | 1024.8 (39.3) | 1219.4 (31.5) | 1233.6 (33.1) | 1757.2 (40.5) | 1921.2 (36.5) | 3129.1 (33.7) |
| 수지(A-B) | 237.1 | 495.3 | 218.0 | 1012.0 | 1545.2 | 1291.5 | 1949.5 | 869.9 | 3139.6 | 814.8 |
| (정부거래를 제외한 경우) | 24.5 | 343.0 | 120.6 | 829.8 | 1231.4 | 1124.3 | 1600.3 | 454.8 | 2453.5 | 37.5 |
| 무역외의환수입 | 486.6 | 936.3 | 992.0 | 3098.0 | 4824.5 | 6328.5 | 6831.5 | 6637.4 | 10430.6 | 12929.5 |
| 무역외의환지급 | 294.5 | 483.2 | 1038.3 | 2354.1 | 4097.3 | 7561.6 | 7197.8 | 8425.6 | 8941.5 | 13228.3 |
| 무역외 수지 | 192.1 | 453.1 | △46.3 | 743.9 | 727.2 | △1233.1 | △366.3 | △1788.2 | 1489.1 | △298.8 |

자료: 한국은행, 외환통계연보 각호

* ()내는 협의서비스수출(수입)중 점유율

2. 서비스部門別 推移

제 2절에서는 서비스교역의 주요항목인 해외여행, 운수, 정부거래, 잡용역 각 부문별로 70년대 이후의 추이와 80년대 이후 지역별구조의 변화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더하여 서비스交易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貿易外去來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수익과 민간이전거래(증여)의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가. 해외여행

해외여행은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및 서비스 수입의 주요한 항목으로서 거래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71년에 각각 31백만불 및 15백만불에 불과하였던 해외여행 수출과 수입은 1989년에는 무려 3,556백만달러 및 2,601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여행, 운수, 보험, 정부거래 및 잡용역의 합계(협의서비스)에서 차지하는 해외여행 수출과 수입의 비중도 1971년에는 각각 7.6% 및 8.6%에 불과하였으나 1989년에는 각각 35.2% 및 2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여행 수출과 수입은 특히 1980년대에 들어 두드러진 신장세를 보였다. 수출의 경우는 아시안 게임, 올림픽의 개최와 수출입 거래 확대에 따라 관광, 상용목적의 입국자수가 8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해외여행 수입은 해외여행규제 완화조치에 따른 출국자 수의 증가와 해외여행경비 지급한도의 상향조정등에 따라 80년대 후반에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거래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계 25대 여행거래국의 여행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각각 0.5% 및 0.4%에 불과하였으나 1988년에는 각각 2.2% 및 0.8%로 비중이 높아졌으며 수출입을 합한 교역규모로는 세계 20위 국가의 위치에 있다.

<표 Ⅲ-2>

세계 25대 해외여행 거래국*

(단위:백만불, %)

| | 수 출 | | | 수 입 | | |
|-------------------|-----------------|-----------------|-----------------|-----------------|-----------------|-----------------|
| | 1980 | 1986 | 1988 | 1980 | 1986 | 1988 |
| 1. 미 국 | 10580 (12.9) | 12917 (12.8) | 29306 (20.1) | 10394 (12.5) | 17575 (17.0) | 32233 (20.0) |
| 2. 서 독 | 6272 (7.7) | 7876 (7.8) | 8416 (5.8) | 20188 (24.2) | 20765 (20.1) | 24938 (15.5) |
| 3. 영 국 | 6901 (8.4) | 7911 (7.8) | 10819 (7.4) | 6387 (7.7) | 8693 (8.4) | 14443 (9.0) |
| 4. 프랑스 | 8243 (10.1) | 9715 (9.6) | 13752 (9.4) | 6014 (7.2) | 6513 (6.3) | 9690 (6.0) |
| 5. 일 본 | 640 (0.8) | 1451 (1.4) | 2895 (2.0) | 4588 (5.5) | 7199 (7.0) | 18737 (11.6) |
| 6. 스페인 | 6944 (8.5) | 11971 (11.8) | 16646 (11.4) | 1229 (1.5) | 1506 (1.5) | 2453 (1.5) |
| 7. 이탈리아 | 8917 (10.9) | 9892 (9.8) | 12329 (8.5) | 1907 (2.3) | 2811 (2.7) | 5962 (3.7) |
| 8. 캐나다 | 2861 (3.5) | 4525 (4.5) | 5683 (3.9) | 3915 (4.7) | 5409 (5.2) | 7823 (4.9) |
| 9. 오스트리아 | 6470 (7.9) | 6082 (6.0) | 8522 (5.8) | 3133 (3.8) | 3266 (3.2) | 4829 (3.0) |
| 10. 스위스 | 3171 (3.9) | 4272 (4.2) | 5675 (3.9) | 2382 (2.9) | 3393 (3.3) | 5053 (3.1) |
| 11. 네델란드 | 1663 (2.0) | 1919 (1.9) | 2853 (2.0) | 4679 (5.6) | 4465 (4.3) | 6690 (4.2) |
| 12. 벨기에 / 룩셈부룩 | 1817 (2.2) | 2283 (2.3) | 3430 (2.4) | 3288 (3.9) | 2976 (2.9) | 4600 (2.9) |
| 13. 멕시코 | 5245 (6.4) | 2989 (3.0) | 3990 (2.7) | 4173 (5.0) | 2108 (2.0) | 3205 (2.0) |
| 14. 스웨덴 | 961 (1.2) | 1543 (1.5) | 2345 (1.6) | 2211 (2.7) | 2813 (2.7) | 4575 (2.8) |

| | 수 출 | | | 수 입 | | |
|-----------|---------------|---------------|---------------|---------------|---------------|---------------|
| | 1980 | 1986 | 1988 | 1980 | 1986 | 1988 |
| 15. 홍콩 | 1299 (1.6) | 2229 (2.2) | .. (..) | 1070 (1.3) | 1970 (1.9) | .. (..) |
| 16. 덴마크 | 1377 (1.7) | 1764 (1.7) | 2415 (1.7) | 1416 (1.7) | 2122 (2.1) | 3084 (1.9) |
| 17. 호주 | 971 (1.2) | 1370 (1.4) | 2767 (1.9) | 1753 (2.1) | 1920 (1.9) | 2990 (1.9) |
| 18. 대만 | 988 (1.2) | 1333 (1.3) | .. (..) | 593 (0.7) | 1841 (1.8) | .. (..) |
| 19. 노르웨이 | 756 (0.9) | 736 (0.7) | 1465 (1.0) | 1476 (1.8) | 1825 (1.8) | 3509 (2.2) |
| 20. 한국 | 370 (0.5) | 1537 (1.5) | 3265 (2.2) | 350 (0.4) | 612 (0.6) | 1354 (0.8) |
| 21. 싱가포르 | 1433 (1.7) | 1842 (1.8) | 2399 (1.6) | 333 (0.4) | 651 (0.6) | 630 (0.6) |
| 22. 그리스 | 1728 (2.1) | 1811 (1.8) | 2419 (1.7) | 308 (0.4) | 492 (0.5) | 735 (0.5) |
| 23. 포르투갈 | 1145 (1.4) | 1556 (1.5) | 2415 (1.7) | 290 (0.3) | 337 (0.3) | 534 (0.3) |
| 24. 말레이시아 | 318 (0.4) | 658 (0.7) | 742 (0.5) | 724 (0.9) | 1192 (1.2) | 1360 (0.8) |
| 25. 이스라엘 | 902 (1.1) | 969 (1.0) | 1344 (0.9) | 531 (0.6) | 847 (0.8) | 1140 (0.7) |
| 합 계 | 81,972 | 101,151 | 145,892 | 83,332 | 103,301 | 160,867 |

자료: GATT, *International Trade 87-88*.

IMF, *Balance of Payments Yearbook 1989*.

* 1988년도 해외여행 수출과 수입의 합계액에 의한 순위임, 단 대만과 홍콩은 1986년 순위임.

** ()내는 25개국 합계중 점유비중, %

해외여행수지는 1970년 이후 1978년과 1982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하여 經常收支의 改善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그간 내국민의 해외여행이 크게 규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서 앞으로는 대폭의 흑자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해외여행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주목되는 현상은(해외여행흑자/총해외여행교역)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비율은 70년대 초반에는 40%를 웃돌았으나 80년대들어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89년에는 4.2%수준까지 떨어져 해외여행수지가 거의 균형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1987, 1988년에는 동비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올림픽 개최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진다.)

해외여행 수지동향

(단위:백만불, %)

| | 1971 | 1977 | 1983 | 1985 | 1987 | 1989 |
|-------------------|------|-------|-------|-------|-------|--------|
| 해외여행수출(X) | 410 | 2,690 | 5,673 | 5,206 | 8,400 | 10,098 |
| 해외여행수입(M) | 173 | 1,678 | 3,825 | 4,336 | 5,260 | 9,283 |
| 해외여행수지(X-M) | 237 | 1,012 | 1,848 | 870 | 3,140 | 815 |
| (X-M) / (X+M) (%) | 40.7 | 23.2 | 19.5 | 9.1 | 23.0 | 4.2 |

해외여행의 지역별 구성을 보면 수출 수입 모두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과 일본을 합한 비중은 1989년의 경우 해외여행수출에서 90%이상, 그리고 해외여행수입에서는 약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 해외여행수출의 약 50%, 그리고 해외여행수입의 약 65%- 70%를 점하여, 해외여행 수출,수입 양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 상대국의 위치를 점하였다. 그러나 해외여행수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은 1980년대 후반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대

해외여행 거래국가로서 특히 해외여행수출선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1980년대 초반에는 해외여행수출선으로서 미국 다음의 위치를 점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미국을 앞질러 우리나라 해외여행수출의 약 60%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이와같이 해외여행수출과 수입이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이루어짐에 따라 해외여행교역의 지역별 편중도가 상품수출입이나 여타 서비스 거래부문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과 일본을 합한 비중은 해외여행수출에서는 80년대중 지속적으로 90%를 상회하였으며 수입에서도 90%를 조금 밑도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였다. 해외여행수출과 수입

〈표 Ⅲ-3〉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여행 거래선

(단위:백만불, %)

| 대상국가 | 해외여행수출 | | | | 해외여행수입 | | | |
|------|---------------|---------------|----------------|----------------|---------------|---------------|---------------|----------------|
| | 1983 | 1985 | 1987 | 1989 | 1983 | 1985 | 1987 | 1989 |
| 미국 | 288 (48.3) | 391 (49.9) | 901 (39.2) | 1277 (35.9) | 373 (67.1) | 418 (69.0) | 450 (63.9) | 1526 (58.6) |
| 일본 | 283 (47.5) | 369 (47.0) | 1327 (57.7) | 2159 (60.7) | 122 (22.0) | 123 (20.3) | 160 (22.7) | 414 (15.9) |
| 영국 | 2 (0.6) | 1 (0.2) | 16 (0.7) | 22 (0.6) | 5 (0.8) | 8 (1.3) | 11 (1.6) | 16 (0.6) |
| 홍콩 | 4 (0.6) | 4 (0.5) | 13 (0.6) | 23 (0.6) | 5 (0.8) | 6 (0.9) | 7 (1.0) | 31 (1.2) |
| 싱가포르 | 0.3 (0.1) | 1 (0.1) | 2 (0.1) | 4 (0.1) | 1 (0.3) | 2 (0.3) | 1 (0.2) | 2 (0.1) |
| 프랑스 | .. (..) | .. (..) | 3 (0.1) | 5 (0.1) | .. (..) | .. (..) | 18 (2.6) | 19 (0.7) |
| 서독 | .. (..) | .. (..) | 15 (0.6) | 26 (0.7) | .. (..) | .. (..) | 19 (2.7) | 27 (1.0) |
| 총계 | 596 | 784 | 2299 | 3556 | 555 | 606 | 704 | 2606 |

자료: 한국은행, 외환통계연보 각호.

* ()내는 점유율(%)

의 허핀달(Herfindahl)지수도 상품수출입이나 여타서비스 부문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¹³⁾ 특기할 만한 사실은 1980년대 후반들어 해외여행 수입면에서는 地域別 多邊化가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하여 해외여행수출면에서는 지역별 편중도가 더욱 심화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나. 운수

운수수출의 주요항목은 화물운임, 여객운임, 항만경비, 운항경비, 용선료 등이며 수입에서는 이에 더하여 원양어로경비가 주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운수수출과 수입은 모두 무역외외환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상품수출입 물량의 증가와 여행자수의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즉, 1970년에는 운수수출과 수입이 각각 37백만달러 및 42백만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89년에는 각각 2,580백만달러와 2,601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¹⁴⁾ 협의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운수의 비중은 1970년대에는 거의 10%대에 머물렀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25%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운수수입은 협의서비스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89년의 경우 약 34%를 점하고 있다. IMF의 국제수지기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운수거래규모는 항목별로 세계 14~16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운수수출과 수

13) 허핀달지수에 대하여는 제Ⅳ장을 참조할 것.

14) 외환수급기준의 운수통계는 국적선적취에 따른 거주자간의 원화거래 및 비거주자간의 운수거래(일본선사가 미국 수출업자의 화물을 한국에 운송한 경우 등)가 제외되는 등 국제수지통계와 편제기준이 상이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수급기준의 운수·보험의 합계가 국제수지기준의 운임·보험·기타 운수의 합계보다 수출면에서는 20%정도, 수입에서는 약 7~10%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국적선적취율이 수출의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수지통계는 국제간 비교가 가능한 잇점이 있는데 비하여 외환수급통계는 “대외”거래만 계상된다는 점에서 실제 대외거래구조의 파악에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수출에서는 화물운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여객운임과 운항경비가 그 다음의 순이나, 수입에서는 운항경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화물운임, 용선료의 순으로 나타났다.

운수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운수수지는 70년대 이후 대부분의 기간중 적자를 시현하였다. 운수수지를 총운수교역액으로 나눈 운수수지율은 1983년에는 -0.4% 수준까지 이르렀으나 1989년에는 -10.6%로 적자폭이 다시 확대되었다.

운수교역의 지역별 구성을 보면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이 양국과의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운수 수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은 1980년대중 점차 감소하는데 비하여 일본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초반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한 운수수출선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對日輸出의 증가등에 힘입어 일본이 가장 주요한 운수수출선으로 등장하였다. 운수수입면에서도 미국의 비중은 감소하고 일본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외에 영국과 홍콩이 우리나라 운수거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政府去來

정부거래에 의한 서비스수출은 대부분 주한미군 주둔경비로서 실제로는 서비스 對外去來의 성격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주요구성항목은 주한미군에 대한 제반 용역 제공대가 및 재 사용료이며 주한 외교단의 경비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支給項目 대부분은 해외주재 공관에 대한 외교단경비의 지출이다. 정부거래는 1970년대 초반까지는 가장 중요한 무역외 거래항목이었으나 그 비중도 점차 감소하여 1989년에는 협의서비스수출의 약 10% 그리고 협의서비스수입의 약 2%의 비중

〈표 Ⅲ -4〉 우리나라의 주요 운수거래선 (단위:백만불, %)

| 대상국가 | 운수 수출 | | | | 운수 수입 | | | |
|---------|----------------|----------------|----------------|----------------|---------------|---------------|----------------|----------------|
| | 1983 | 1985 | 1987 | 1989 | 1983 | 1985 | 1987 | 1989 |
| 미 국 | 1292 (76.9) | 1011 (65.1) | 1090 (56.1) | 1316 (51.0) | 967 (57.2) | 915 (53.3) | 1061 (44.9) | 1468 (46.0) |
| 일 본 | 233 (13.9) | 268 (17.2) | 493 (25.4) | 592 (23.0) | 301 (17.8) | 301 (17.8) | 674 (28.5) | 834 (26.2) |
| 영 국 | 42 (2.5) | 68 (4.4) | 32 (1.7) | 77 (3.0) | 76 (4.5) | 53 (3.1) | 120 (5.1) | 160 (5.0) |
| 홍 콩 | 48 (2.8) | 66 (4.3) | 88 (4.6) | 132 (5.1) | 101 (5.9) | 76 (4.4) | 107 (4.5) | 98 (3.1) |
| 싱가포르 | 13 (0.8) | 24 (1.6) | 41 (2.1) | 65 (2.5) | 33 (1.9) | 57 (3.3) | 56 (2.4) | 113 (3.6) |
| 사우디아라비아 | 1 (0.1) | 18 (1.1) | 3 (0.1) | 14 (0.5) | 16 (1.0) | 11 (0.7) | 9 (0.4) | 7 (0.2) |
| 프랑스 | .. (..) | .. (..) | 30 (1.5) | 36 (1.4) | .. (..) | .. (..) | 49 (2.1) | 55 (1.7) |
| 독 일 | .. (..) | .. (..) | 25 (1.3) | 58 (2.3) | .. (..) | .. (..) | 21 (0.9) | 47 (1.5) |
| 총 계 | 1678 | 1553 | 1941 | 2580 | 1692 | 1718 | 2360 | 3190 |

* ()내는 점유율(%)

에 불과하다. 정부거래의 지역별 구성에서는 미국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잡용역

잡용역은 1970년대 후반이후 우리나라의 서비스거래 항목중 가장 주요한 항목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잡용역의 주요 세분류 거래항목으로는 서비스수출(외환수입)에서는 해외건설용역, 제수수료, 통신비, 지사경비, 해외취업급료 등이며 서비스수입(외환지급)에서는 제수수료, 지

사경비, 기술용역대가 및 특허권사용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중 해외 건설용역의 수출은 중동건설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1970년대 중에는 해외건설경기의 호조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잡용역수출은 1979년에 이미 약 26억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협의서비스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이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그 이후 중동 건설경기의 퇴조에 따라 해외건설용역수출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으

〈표 Ⅲ-5〉 잡용역 교역의 항목별 최근동향

(단위:백만불)

| 항 목 | 수 출 | | | | 수 입 | | | |
|-----------------------|-----------------|------------------|-----------------|------------------|------------------|-----------------|-----------------|------------------|
| | 1986 | 1987 | 1988 | 1989 | 1986 | 1987 | 1988 | 1989 |
| 해외건설용역 | 635.4 (24.0) | 1003.5 (31.1) | 360.5 (12.2) | 238.7 (8.3) | 185.0 (7.7) | 196.5 (10.2) | 109.4 (4.4) | 84.1 (2.7) |
| 제수수료 | 788.3 (29.8) | 943.7 (29.3) | 879.1 (29.9) | 1022.4 (35.6) | 264.8 (11.0) | 310.4 (16.2) | 413.7 (16.6) | 580.3 (18.5) |
| (대리점수수료) | 686.8 (26.0) | 906.7 (28.1) | 829.0 (28.2) | 952.3 (33.2) | 228.8 (9.5) | 277.4 (14.4) | 370.3 (14.8) | 473.2 (15.1) |
| 지사경비 | 255.0 (9.6) | 321.1 (10.0) | 306.2 (10.4) | 328.9 (11.5) | 187.6 (7.8) | 175.5 (9.1) | 250.7 (10.1) | 350.6 (11.2) |
| 통신비 | 205.0 (7.8) | 255.1 (7.9) | 458.0 (15.6) | 213.3 (7.4) | .. | .. | .. | .. |
| 기술용역대가 및 특허권사용료 | .. | .. | .. | .. | 472.9 (19.6) | 574.3 (29.9) | 815.3 (32.7) | 1123.3 (35.9) |
| 취업 및 급료 | 358.3 (13.6) | 439.0 (13.6) | 516.6 (17.6) | 615.3 (21.4) | .. | .. | .. | .. |
| 기 타 | .. | .. | .. | .. | 1306.9 (54.1) | 664.5 (34.6) | 905.2 (36.3) | 990.8 (31.7) |
| 합 계 | 2643.8 | 3223.0 | 2943.3 | 2869.7 | 2417.3 | 1921.3 | 2494.3 | 3129.1 |

자료: 한국은행, 외환통계연보 각호.

* ()내는 점유율(%)

<표 Ⅲ-6>

우리나라의 주요잡용역 거래선

(단위:백만불, %)

| 대상국가 | 잡용역 수출 | | | | 잡용역 수입 | | | |
|---------|---------------|----------------|----------------|----------------|---------------|---------------|---------------|----------------|
| | 1983 | 1985 | 1987 | 1989 | 1983 | 1985 | 1987 | 1989 |
| 미 국 | 992 (34.8) | 1047 (45.5) | 1690 (52.4) | 1298 (45.2) | 531 (43.1) | 833 (47.4) | 877 (45.6) | 1582 (50.6) |
| 일 본 | 237 (8.3) | 317 (13.8) | 534 (16.6) | 831 (29.0) | 140 (11.3) | 183 (10.4) | 281 (14.6) | 510 (16.3) |
| 영 국 | 180 (6.3) | 79 (3.4) | 259 (8.0) | 118 (4.1) | 117 (9.5) | 56 (3.2) | 118 (6.2) | 146 (4.7) |
| 홍 콩 | 63 (2.2) | 47 (2.0) | 90 (2.8) | 147 (5.1) | 96 (7.7) | 94 (5.4) | 117 (6.1) | 216 (6.9) |
| 싱가포르 | 23 (0.8) | 23 (1.0) | 23 (0.7) | 29 (1.0) | 35 (2.8) | 69 (3.9) | 18 (0.9) | 49 (1.6) |
| 사우디아라비아 | 821 (28.8) | 258 (11.2) | 164 (5.1) | 36 (1.3) | 45 (3.7) | 108 (6.1) | 144 (7.5) | 72 (2.3) |
| 프랑스 | .. (..) | .. (..) | 17 (0.6) | 27 (1.0) | .. (..) | .. (..) | 36 (1.9) | 73 (2.3) |
| 독 일 | .. (..) | .. (..) | 61 (1.9) | 84 (2.9) | .. (..) | .. (..) | 48 (2.5) | 117 (3.7) |
| 총 계 | 2851 | 2230 | 3223 | 2870 | 1234 | 1757 | 1921 | 3129 |

* ()내는 점유율(%)

며, 이에 따라 전체 잡용역수출도 여타 항목의 빠른속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반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하여 협의서비스수입에서 차지하는 잡용역의 비중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잡용역수입에서 주목되는 항목은 기술용역대가 및 특허권 사용료로서 1980년대 후반들어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89년에는 11억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잡용역지급의 약 36%를 점하였다. 이에 따라 여타항목의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잡용역수지는

1989년에는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향후에도 잡용역수지가 적자를 지속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잡용역수출의 지역별구성을 보면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역시 압도적이다. 잡용역 교역은 여타 서비스항목에 비하여 지역별 집중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편이나 1980년대 후반들어 일본의 비중이 빠른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마. 投資收益

투자수익 관련의 外換受入·支給은 엄밀한 의미에서 서비스교역이라고 볼 수 없으나 투자수익지급이 우리나라의 무역외지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투자수익受入도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내역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 다른 면에서는 투자수익이 종합적인 자본유출입 구조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간접적으로 이를 파악한다는 의미도 있다. 투자수익 受入項目에서는 주로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예치로부터 발생하는 외화증권이자, 예치금이자, 본지점이자 및 연불수출이자등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급면에서는 차관이자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차입에 대한 이자지급이 주요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수익지급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상태 및 국제금리에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경상수지적자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대규모차입이 발생하고 국제고금리현상이 지속되었던 1980년대 초반에는 투자수익지급규모가 급증하여 1986년에는 40억달러를 넘는 수준에까지 다다랐다. 이에 따라 1980년대초반 투자수익지급은 무역외수지적자 및 경상수지적자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이에 따라 외채잔고가 감축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금리도 낮아진데 힘입어 1987년부터는 지급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89년에도 투자수익지급은 28억달러 이상을 기록하여 전체 무역외외환지급의 21%정도에 해당하는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投資收益受入은 그 절대규모는 투자수익지급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1980년대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1989년에는 약 17억달러에 이르러 전체 貿易外外換受入에서 약 13%의 비중을 점하였다.

바. 贈 與

일반적으로 증여는 비경제적 요인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생각되나, 贈與受入 支給의 규모자체는 경제거래의 확대와 더불어 증가해왔으며 특히 80년대 후반들어서는 해외이주비한도의 증액과 개인송금한도의 상향조정등의 영향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증여수입은 개인송금과 종교기관송금수입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1987-88년의 대량유입은 원貨切上을 노린 투기성자금의 유입으로 판단된다. 증여지급에서는 1987년까지는 해외이주비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1988년 미국과 일본에 대한 개인송금이 급증하여 1억달러를 넘는 수준을 기록한 후 1989년에는 약 8억달러의 개인송금이 이루어져서 증여지급의 2/3이상을 점하고있다.

3. 서비스輸出의 固定占有率 分析(Constant Market Share Analysis)¹⁵⁾

이제 고정점유율분석(Constant Market Share Analysis : CMS) 방법을 사용하여 1981-88기간중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증가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동 분석방법은 Tyszynski와 Richardson이 개발한 것으로서 특정국가의 상품수출의 증가요인을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고정점유율분석에 필요한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X_{ik} : j기의 우리나라로부터 k국가로의 서비스부문 i의 수출액

$X_{j.} = \sum_k X_{ik}$: 우리나라의 서비스부문 i의 j기 수출액

$X_{j.k} = \sum_i X_{ik}$: 우리나라의 k국에 대한 j기의 서비스 수출액

$X_j^1 = \sum_i X_{j.i}$: 우리나라의 j기의 총 서비스수출액

r : 기간중 세계 서비스 총수출의 증가율

r_i : 기간중 서비스부문 i의 세계수출 증가율

r_{ij} : 기간중 j국의 서비스부문 i의 수입증가율

위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제 1기로부터 제 2기까지의 기간중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증가를 표시하면,

$$X^2 - X^1 \equiv rX^1 + \sum_i (r_i - r)X_{j.i}^1 + \sum_i \sum_j (r_{ij} - r) X_{ij}^1$$

(A) (B) (C)

$$+ \sum_{i,j} (X_{ij}^2 - X_{ij}^1 - r_{ij} X_{ij}^1) \text{로 된다.}$$

(D)

15) 本節의 고정점유율분석에 대한 설명은 이영선,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비교우위분석과 전망(국제경제연구원) 1980, pp. 12~17에 기초하고 있으나 두가지 점에서 상이하다. 먼저 이영선(1980) 및 여타 연구에서는 CMS를 불변시장점유율 분석이라 칭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정점유율 분석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고정점유율 분석이라는 명칭이 불변시장점유율 분석이라는 명칭에 비하여 분석방법을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분석에 필요한 변수들을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위의 식에서 A, B, C, D항은 각각 ① 세계 수입수요의 전반적인 증가에 의한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증가분(A항) ②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서비스부문별 세계 수입수요 증가속도의 상대적인 격차에 의한 부분(B항) ③ 우리나라 서비스輸出先別 수입수요 증가속도의 상대적인 격차에 기인한 부분(C항) 및 ④ 우리나라 서비스수출부문별 상대적인 경쟁력 변화에 의한 부분(D항)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고정점유율 분석방법은 위의 수출변화 요인들을 각각 ① 세계 수입수요 증가효과(A항) ② 수출상품 구성효과(B항) ③ 수출시장 구성효과(C항) 및 ④ 경쟁력 효과(D항)로 해석하고 있다.

本節에서는 이와 같은 CMS분석방법을 서비스수출부문에 적용하여 1981-88년중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증가요인을 위의 4가지 효과로 분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미국, 일본, 영국, 홍콩, 싱가포르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6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서비스 부문별 수출통계를 구하였다. 6개국 이외 국가들에 대한 서비스 수출은 기타 지역으로 집계하였다. 위의 6개국에 대한 서비스 수출비중이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90%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국가들을 기타 지역으로 집계하여 분석하는데 따른 통계의 왜곡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6개국에 우리나라의 상품교역선으로서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세계 서비스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델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멕시코, 호주 등 13개국을 더한 총 19개국의 서비스 수입통계의 합계를 전세계 서비스수출통계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서비스수입통계는 IMF의 國際收支統計年報(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Yearbook 1989)에서 여행, 운임, 정부거래 및 기타 재화 및 용역의 4개부문별로 1981, 1985, 1988년의 3개년 통계를 입수하였다. 단, IMF의 통계가 특별인출권(SDR)기준으로 편제되어 있으므로 이를 각각 해당년도의 연평균환율(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기준)을 이용하여 미달러기준 통계로 환산하였다. 한

〈표 III -7〉 우리나라 서비스수출 증가의 고정점유율 분석결과(1981-1988)

(%)

| | 1981-1985 | 1985-1988 |
|-----------------|-----------|-----------|
| 세계 서비스수입수요 확대효과 | -0.1 | 60.2 |
| 서비스 수출부문 구성효과 | 2.1 | -6.0 |
| 수출시장 지역구성 효과 | 21.9 | 20.9 |
| 기타 효과(경쟁력 효과) | -23.0 | 7.7 |
| 협의서비스수출 총신장율 | 0.9 | 82.8 |

편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통계는 외환수급기준 통계에서 해외여행, 운임 및 보험, 정부거래, 잡용역등 협의서비스 수출의 4개 부문별, 지역별 통계를 이용하였다. 이와같은 통계를 이용하여 CMS분석을 행한 결과는 다음표에 정리되어 있다.

1981-1985년 기간중 우리나라의 狹義서비스 輸出은 0.9%증가하였는데 기간중 세계의 서비스 수입수요는 오히려 0.1%감소하여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비스부문 구성효과는 2.1%, 지역구성효과는 21.9%인데 반하여 기타효과(경쟁력 효과)는 23%의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985-1988년 중에는 협의서비스 수출이 82.8%증가하였는데 세계 수입수요의 확대효과는 60.2%에 달하고 있으며 서비스부문 구성효과, 지역구성효과 및 기타효과는 각각 -6.0%, 20.9% 및 7.7%로 계산되었다. 이상의 분석에서 1980년대중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증가의 몇가지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신장세가 세계 서비스수입수요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즉, 1981-85년 기간중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출 및 세계 서비스 수입수요증가세는 각각 0.9% 및 -0.1%로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1985-88년 기간중 동 수치는 각각 82.8% 및 60.2%에 달하고 있다. 1988년의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통계가 올림픽 개최에 따라 추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이

세계의 서비스 수입증가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81-1985 및 1985-1988기간중 서비스수출의 지역구성효과는 각각 20%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서비스수출선인 미국 및 일본지역의 서비스수입수요가 기간중 여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하여 서비스부문 구성효과는 1981-85 및 1985-88 기간중 각각 2.1% 및 -6.0%를 기록하여 서비스 수출증가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서비스수입수요보다 낮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운수 및 잡용역이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상의 분석결과는 매우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서비스부문 구성효과의 경우 서비스 수출부문을 어느정도 분류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것이나 현재에는 통계상의 제약으로 4부문이상으로 분류하기가 불가능하다. 향후 서비스 교역부문의 통계가 정비된 이후에야 좀 더 자세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세계 서비스 수입수요통계는 국제수지기준 통계를 사용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통계는 외환수급기준 통계를 사용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외환수급통계가 국제수지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그 편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서비스關聯 直接投資 推移

서비스관련 직접투자(FDI)는 서비스의 현지판매를 통한 간접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국제거래의 주요한 경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서비스와 관련한 對韓直接投資流入 및 우리나라의 대외직접투자의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Ⅲ-8>은 우리나라의 연도별 업종별 대외직접투자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Ⅲ-9>은 對韓直

接投資推移를 산업별로 나타내고 있다. 한편 <표 III-10>는 서비스산업의 對韓直接投資殘高를 국별, 산업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위의 3개의 표를 검토해 보면 먼저 전체적으로 대한직접투자유입이 우리나라의 대외직접투자를 상회하는, 즉 직접투자의 유입초과 상태가 지속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累計基準으로 1968-1989년중 우리나라가 약 30억 불의 대외직접투자를 기록한데 비하여 동기간중 전체 對韓直接投資流入은 약 70억불에 달하여 40억불 규모의 유입초과를 시현하였다. 이는 그간의 만성적인 경상수지적자에 따라 대외직접투자가 규제된데다 경영기술상의 낙후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외투자능력이 크게 제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기업의 국제화와 경상수지적자에 따른 규제완화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대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한편 직접투자의 산업별구성 추이를 검토해 보면 직접투자의 내용이 서비스화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즉, 對韓直接投資의 산업별 구성에 있어서 1980년대들어 서비스관련 직접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대외직접투자에서도 서비스관련투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외직접투자는 절대적 수준에 있어서는 아직 자원개발관련 광업투자와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서비스관련 직접투자규모와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규모를 비교해보면 국제 서비스 교역수단으로서의 서비스관련투자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를 알 수 있다. 1989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규모가 약 194억달러 수준인데 비하여 서비스관련 직접투자의 잔고(流出入)는 약 32억달러 수준에 달하여(서비스교역/직접투자잔고)비율이 8을 상회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6년 기준으로 서비스교역규모는 1123억달러, 그리고 서비스관련 직접투자잔고는 626억달러를 기록하여 동비율은 약 1.8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서비스교역과 직접투자잔고가 각각 1,549억달러 및 2,303억달러를 기록하여 동비율은 0.7정도에 불과하다.¹⁶⁾ 즉,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은 직접투자를 통한 간접적교역 보다는

직접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對韓直接投資의 國別 構成을 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미국이 對韓直接投資를 주도했으나 그이후 일본이 대한직접투자를 주도하고 있으며 누계기준으로도 미국이 전체의 약 28% 그리고 일본은 약 49%를 차지하여 이미 일본이 가장 주요한 대한직접투자국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서비스관련 대한직접투자에서는 일본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서비스산업의 투자비중이 낮아 미국의 대한직접투자가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표 Ⅲ-8> 우리나라의 년도별·업종별 해외투자실적(인가기준)

| 업종 연도 | 광업 | | 임업·수산업 | | 제조·건설업 | | 서비스업 | | 계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1972-76 | - | - | 19 | 16.0 (24.8) | 26 | 19.4 (30.1) | 90 | 29.0 (45.0) | 135 | 64.5 |
| 1977-81 | 6 | 90.0 (30.2) | 31 | 62.1 (20.9) | 69 | 91.1 (30.6) | 206 | 54.5 (18.3) | 312 | 297.7 |
| 1982-86 | 7 | 456.7 (53.5) | 19 | 49.5 (5.8) | 107 | 253.4 (29.7) | 156 | 94.1 (11.0) | 289 | 853.7 |
| 1987 | 3 | 205.9 (57.8) | 5 | 1.4 (0.3) | 51 | 112.3 (31.5) | 50 | 36.7 (10.3) | 109 | 356.2 |
| 1988 | | 99.9 (20.8) | 9 | 19.5 (3.8) | 121 | 230.2 (48.0) | 121 | 130.1 (27.1) | 253 | 479.6 |
| 1989 | 5 | 70.4 (7.6) | 13 | 83.0 (9.0) | 217 | 464.0 (50.1) | 134 | 309.5 (33.4) | 369 | 926.9 |
| 누계 (1968-1989) | 23 | 922.9 (30.8) | 101 | 241.7 (8.1) | 595 | 1173.5 (39.1) | 777 | 660.7 (22.0) | 1496 | 2998.8 |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1990)

* () 내는 점유율(%)

16) U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Services, 1989*, pp. 12~16 및 각국의 국제수지 통계에서 추출.

향후 경제의 개방화 및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의 결과로 규제가 완화되는 부문의 대한직접투자에서도 일본이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對韓直接投資 전반 및 서비스관련 대한직접투자의 지역별 집중도를 허핀달지수(Herfindahl Index)를 통해 파악해보면 서비스관련 직접투자 누계의 경우는 동지수가 0.4208을 그리고 전체직접투자는 0.3218을 기록하여 서비스관련 직접투자가 지역별로 더욱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관련 직접투자의 동수치는 상품수출입의 허핀달지수는 물론 서비스輸出入의 허핀달지수 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제IV장 참조)

〈표 III-9〉 산업별 대한 직접투자 추이(인가기준)

단위 : 백만불

| 년도 | 산업 | 광업 | 농림·수산업 | 제조·건설업 | 서비스업 | 서비스업 | | | | 합계 |
|---------|----|-----|--------|--------|------------------|---------|--------|--------|--------|--------|
| | | | | | | 도소매·무역업 | 음식·숙박업 | 금융·보험업 | 기타 서비스 | |
| 1967-71 | | 0.3 | 2.0 | 188.4 | 28.0 (12.8) | 0.0 | 7.3 | 2.9 | 17.7 | 218.6 |
| 1972-76 | | 4.3 | 8.0 | 676.2 | 191.0 (21.7) | 0.0 | 160.8 | 10.4 | 19.8 | 879.4 |
| 1977-81 | | 1.7 | 4.7 | 492.0 | 222.3 (30.8) | 0.4 | 71.4 | 93.8 | 56.7 | 720.6 |
| 1982-86 | | 4.3 | 5.6 | 971.2 | 785.7 (44.5) | 18.3 | 673.4 | 67.3 | 26.7 | 1766.7 |
| 1987 | | 1.0 | 2.7 | 775.3 | 281.2 (26.5) | 5.2 | 249.2 | 16.7 | 10.1 | 1060.2 |
| 1988 | | 1.7 | 9.8 | 738.1 | 533.1 (41.6) | 3.9 | 420.2 | 99.8 | 9.2 | 1282.7 |
| 1989 | | 1.3 | 2.2 | 727.4 | 359.4 (33.0) | 36.2 | 102.3 | 199.3 | 21.6 | 1090.3 |
| 1987-89 | | 4.0 | 14.7 | 2240.8 | 1173.7 (34.2) | 45.3 | 771.7 | 315.8 | 40.9 | 3433.2 |

자료 : 재무부, 외국인 투자동향(1990.9)

〈표 Ⅲ-10〉 서비스관련 對韓 直接投資殘高의 國別·產業別 構成(인기누계기준)

| | 단위 : 백만불 | | | | | | | | | |
|---------|------------------------------|--------------------------|----------------------------|------------------------|-------------------------|-------------------------|-------------------------|-------------------------|--------------------------|-----------------------------|
| | 미 국 | 홍 콩 | 일 본 | 스 위 스 | 서 독 | 영 국 | 프 랑 스 | 네 델 란 드 | 기 타 | 총 계 |
| 서비스 산업 | 305.5 (11.9)* (14.1)** | 123.1 (4.8) (54.1) | 1784.2 (69.6) (47.6) | 19.8 (0.8) (8.3) | 45.4 (1.8) (15.9) | 54.2 (2.1) (24.5) | 47.2 (1.8) (30.1) | 28.9 (1.1) (14.9) | 157.0 (6.1) (34.7) | 2565.3 (100.0) (33.3) |
| 도·소매·무역 | 34.3 | 3.1 | 18.9 | 1.9 | 10.2 | 0.9 | 0.5 | 20.7 | 17.0 | 107.5 |
| 음식·숙박업 | 21.4 | 88.9 | 1486.7 | 10.8 | 0.0 | 0.0 | 30.4 | 7.5 | 59.2 | 1704.9 |
| 금융·보험 | 178.1 | 23.0 | 207.9 | 3.6 | 28.5 | 52.9 | 15.8 | 0.0 | 71.4 | 581.2 |
| 기타 서비스 | 71.6 | 8.1 | 70.6 | 3.6 | 6.6 | 0.4 | 0.4 | 0.7 | 9.8 | 171.8 |
| 직접투자 | 2173.0 (28.2)* | 227.4 (3.0) | 3751.7 (48.7) | 238.4 (3.1) | 284.9 (3.7) | 221.1 (2.9) | 156.8 (2.0) | 193.7 (2.5) | 452.7 (5.9) | 7699.7 (100.0) |

* 해당부문 총계중 각국의 점유율

** 해당국가의 직접투자액중 서비스산업 직접투자액의 비중

자료 : 재무부, 외국인 투자동향(1990.9)



IV. 地域別 서비스交易構造

本章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의 지역별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제 1절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의 지역별 점유구조에 대하여 개관하고 상품수출입의 지역별 점유구조와 비교하였으며, 제 2절에서는 서비스수출의 지역별 輸出結合度를 살펴보았다. 제 3절에서는 産業組織理論에서 개발된 허핀달지수(Herfindahl Index)를 이용하여 서비스교역의 지역별 집중도를 지수화하고 동지수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상품교역부문의 동지수를 계산하여 상품교역과 서비스교역의 지역별 집중도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제 4절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교역 상대국인 미국과의 쌍무적인 서비스교역 구조를 분석하였다. 특히 外換受給基準統計를 국제수지기준으로 환산하여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에서 차지하는 對美 서비스교역의 비중 뿐 아니라 對韓 서비스交易이 미국의 서비스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제 5절은 우리나라 제2의 서비스교역 상대국인 일본과의 쌍무적 서비스交易構造를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일본이외의 기타지역과의 서비스 교역구조는 제 6절에서 다루고 있다.

1. 地域別 서비스交易構造 개관

<표 IV-1>은 1981년 이후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입의 지역별 점유율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실은 먼저,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1989년의 경우 표에 나타난 8개국에 대한 서비스수출은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약 92%, 그리고 이들 국가로부터의 서비스수입은 우리나라의 전체 서비스수입의 약 85%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同年度 상품교역의 경

〈표 IV-1〉 서비스輸出入의 地域別 占有率 推移 (外換受給 기준) (%)

| | | 1981 | 1983 | 1985 | 1987 | 1989 |
|---------------|----|----------------|----------------|----------------|----------------|----------------|
| 미 국 | 수출 | 37.8 (26.6) | 52.9 (33.7) | 55.0 (35.5) | 52.4 (38.7) | 47.5 (33.1) |
| | 수입 | 52.1 (23.2) | 53.5 (24.0) | 53.1 (20.8) | 46.3 (21.4) | 48.2 (25.9) |
| 일 본 | 수출 | 15.8 (16.5) | 13.6 (13.9) | 17.3 (15.0) | 28.5 (17.8) | 32.9 (21.6) |
| | 수입 | 12.3 (24.4) | 12.1 (23.8) | 13.6 (24.3) | 12.8 (33.3) | 18.6 (28.4) |
| 영 국 | 수출 | 3.2 (3.3) | 5.3 (4.1) | 4.2 (3.0) | 3.8 (3.2) | 3.8 (3.0) |
| | 수입 | 9.0 (1.5) | 8.8 (1.8) | 5.5 (1.8) | 5.6 (1.8) | 4.8 (1.5) |
| 홍 콩 | 수출 | 3.0 (5.4) | 2.6 (3.3) | 3.6 (5.2) | 2.6 (4.7) | 3.0 (5.4) |
| | 수입 | 5.2 (0.8) | 7.9 (0.8) | 10.9 (1.6) | 8.0 (1.0) | 5.1 (0.9) |
| 싱가포르 | 수출 | 1.3 (1.4) | 1.5 (2.2) | 1.4 (1.6) | 1.0 (2.0) | 1.3 (2.5) |
| | 수입 | 5.0 (0.6) | 4.8 (1.5) | 4.2 (0.9) | 2.8 (1.1) | 3.1 (1.0) |
| 사 우 디 아리비아 | 수출 | 23.4 (5.3) | 12.4 (5.9) | 4.4 (3.2) | 1.8 (2.2) | 0.6 (1.3) |
| | 수입 | 1.8 (13.6) | 1.0 (7.7) | 1.5 (2.1) | 1.8 (2.6) | 0.6 (1.7) |
| 프 랑 스 | 수출 | .. (1.9) | .. (1.3) | .. (1.0) | 0.6 (1.9) | 0.7 (1.4) |
| | 수입 | .. (1.1) | .. (1.0) | .. (1.4) | 1.8 (1.9) | 2.1 (1.4) |
| 서 독 | 수출 | .. (3.8) | 1.4 (3.2) | 1.3 (3.2) | 1.6 (4.2) | 2.6 (3.4) |
| | 수입 | .. (2.6) | 2.0 (2.5) | 1.2 (3.1) | 2.3 (4.4) | 2.5 (4.3) |
| 기 타 | 수출 | .. (35.8) | .. (32.4) | .. (32.3) | 7.7 (25.3) | 7.6 (28.3) |
| | 수입 | .. (32.2) | .. (36.9) | .. (44.0) | 18.6 (32.5) | 15.0 (34.9) |

* ()내는 상품수출입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비중.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및 외환통계연보 각호.

우 동 8개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수출의 약 72% 그리고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수입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교역이 상품교역보다도 더욱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兩國은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1989년의 경우 서비스수출에서는 미국이 47.5%, 그리고 일본이 32.9%를 점하여 양국을 합한 비중은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약 80%를 상회하고 있다. 兩國으로부터의 서비스수입은 우리나라 서비스수입의 약 67%를 점하고 있다. 미국은 서비스수출수입 양부면에서 모두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한 교역상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80년대 후반들어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의 절반가량이 미국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수출 수입의 점유율이 각각 상품교역에서의 미국의 비중(30% 내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서비스교역의 對美 편중도는 상품교역의 對美 편중도보다 크게 높은 실정이다.

서비스교역에서의 일본의 비중은 수출·수입 모두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에서 차지하는 對日 輸出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비중이 서비스수출입 양면에서 증가하는 현상은 미국의 비중이 점감하는 추세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4~5년 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상대국으로서 미국과 거의 대등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서비스수출비중은 중동건설경기의 부진에 따라 1980년대 중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각국별로 우리나라의 商品交易과 서비스交易에서 각각 점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서비스교역의 점유율과 상품교역의 점유율간에 강한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상품교역비중과 서비스교역 비중간의 정의 상관관계는 상품교역규모와 서비스 교역규모가 국가간의 요소부존 및 기술의 격차 등 동일한 요인에 의

하여 결정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홍콩 등 국가의 경우 각국의 서비스교역 점유비중이 당해국가가 우리나라의 상품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이제 回歸分析을 통하여 각국별 서비스교역비중과 상품교역 비중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와 국가 i 간의 t 년도의 상품교역이 동년도의 우리나라 상품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X_{it} 라 하고 국가 i 와의 狹義서비스교역이 우리나라 狹義서비스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Y_{it} 라 하면 1980년대중 6개국에 대해서(X_{it} , Y_{it})의 8개년치 통계를 구할 수 있으며 2개국에 대해서는 3개년간의(X_{it} , Y_{it})통계를 입수할 수 있다. 즉(X_{it} , Y_{it})의 54개 짝이 변형된 형태의 패널 데이터(panel data)로서 입수가 가능하다. 商品交易比重과 서비스 교역비중 사이에 다음과 같은 선형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¹⁷⁾

$$\ln Y_{it} = A + B^i \ln X_{it} + E_{it}$$

데이터의 관찰횟수가 많지 않으므로 본격적인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국가별로 B^i 가 다르지 않다는 가정과 또한 오차항의 시계열상 및 종단면상의 獨立性和 同分散性(Homoscedasticity)을 가정하기로 한다.¹⁸⁾ 이상의 가정하에서는 각각의(X_{it} , Y_{it})짝을 독립된 관

17) 이하의 回歸分析은 각국별 상품교역비중과 서비스 교역비중간의 상관관계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며 교역이론을 배경으로 한 가설검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시계열 및 종단면 데이터가 충분히 구비되면 상품교역비중과 서비스교역비중간의 인과관계(causality) 등에 대해 검증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다. 한편 X_{it} 를 독립변수로 하고 Y_{it} 를 종속변수로 놓은 것은 상품교역의 절대규모 자체가 서비스교역규모보다 크므로, 서비스교역이 상품교역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상품교역이 서비스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18)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Williame H. Greene, 1990, *Econometric Analysis*, (Macmillan Publishing Co: New York pp. 461-504)을 참조할 것.

측치로 간주하여 回歸分析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結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ln Y_{it} = -0.16572 + 1.13904 \ln X_{it}, R^2 = 0.9044$$

$$(-1.644) \quad (22.174)$$

* () 내는 t - value

위의 結果는 商品交易比重과 서비스 교역비중간에 강한 正의 상관계수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商品交易比重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교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짐을 나타내고 있다.

2. 地域別 서비스 輸出結合度

제 1절의 分析結果 우리나라의 서비스交易이 미국과 일본 등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各國別 商品교역점유율과 서비스교역점유율 사이에 강한 正의 상관계수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특정국간의 서비스교역의 절대규모는 특정국의 經濟規模에 크게 영향을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인 의미에서는 특정국과의 交易이 우리나라 交역에서 점하는 비중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와 특정국간에 긴밀한 交역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經濟規模를 감안하여 쌍무적인 交역관계의 상대적 긴밀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수출입 結合도가 주로 이용된다. 본절에서는 수출結合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交역상대국간의 서비스교역의 상대적 긴밀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 i의 j국에 대한 수출結合도 E_{ij}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¹⁹⁾

19) 수입結合도도 유사한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들 지수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추가 설명은 M. Ariff and H. Hill,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The ASEAN Experience*(Allen and Unwin) 1985, pp. 202~203을 참조할 것.

$$E_{ij} = \frac{(X_{ij} / X_i)}{(M_j / (M_w - M_i))} = \left[\frac{X_{ij}}{X_i} \right] \left[\frac{M_w}{M_j} \right] \left[1 - \frac{M_i}{M_w} \right]$$

$$\text{즉, } E_{ij} = \left[\frac{\text{i국 수출에서의 대j국수출비중}}{\text{전세계 수입중 j국의 비중}} \right] \left[1 - \text{전세계 수입중 i국 비중} \right]$$

위의 수식에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X_{ij} : 국가 i로부터 국가 j에 대한 수출액

X_i : 국가 i의 전체 수출액

M_j : 국가 j의 전체수입액

M_w : 세계 수입액

<표 IV-2>는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地域別 輸出結合度를 1981, 85, 88년의 3개년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잘 나타난다. 먼저 서비스수출의 지역별 점유율과 지역별 수출결합도간에 정의 상 관련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출은 점유비중

<표 IV-2> 지역별 서비스수출결합도 추이

| | 1981 | 1985 | 1988 |
|---------|------------|------------|------------|
| 미 국 | 2.29(34.5) | 2.85(57.6) | 2.78(52.4) |
| 일 본 | 1.32(16.0) | 1.62(18.4) | 2.37(32.8) |
| 영 국 | 0.26(2.3) | 0.37(3.0) | 0.22(2.0) |
| 홍 콩 | 1.95(2.3) | 1.51(2.3) | 1.67(2.8) |
| 싱가포르 | 0.47(0.5) | 0.66(0.9) | 0.69(0.9) |
| 사우디아라비아 | 5.50(28.5) | 1.00(5.5) | 0.52(1.0) |
| 프 랑 스 | .. | .. | 0.10(0.9) |
| 서 독 | .. | .. | 0.10(1.4) |

자료 : 한국은행, 외환수급통계 및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Yearbook*

(1989)에서 계산

* ()내는 협의서비스수출 점유율, (%)

이 큰 국가에 더욱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로서 우리나라의 2대 서비스수출선인 미국, 일본의 경우 수출결합도도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절대적인 규모뿐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에 긴밀한 市場依存關係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일본의 輸出結合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수출결합도는 1980년대중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5년에 1을 기록한 후 1988년에는 0.52까지 떨어졌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감소가 여타국에 비하여 더욱 현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對중동 건설용역수출의 감소가 단지 현지의 수요감소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競爭力 상실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편 영국, 프랑스 및 서독과의 수출결합도는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할수록 輸出結合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서비스交易의 地域集中度

〈표 IV-1〉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은 일부국가에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産業組織論에서 개발된 허핀달 지수(Hefindahl Index)를 이용하여 이와같은 서비스거래의 지역집중도를 지수화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商品交易에 대해서도 동지수를 계산하여 상품교역의 지역집중도와 서비스교역의 지역집중도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먼저 허핀달지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同指數는 産業組織論에서 시장의 집중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지수로서, 개개기업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으로 정의된다.²⁰⁾ 즉 n 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특정산업에서 i

20) 편의상 동수치에 10,000을 곱한 수치를 허핀달 지수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허핀달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tephen Martin, *Industrial Economics*, Macmillan Publishing Co., 1988, pp. 100~104을 참조할 것.

기업의 市場占有率을 S_i 로 표시하면, ($0 \leq S_i \leq 1$), 동산업의 허핀달지수 H 는

$$H = S_1^2 + S_2^2 + S_3^2 + \dots + S_n^2 \text{으로 계산된다.}$$

독점의 경우에 H 지수는 1로 나타나며 完全競爭市場으로서 기업의 수가 많을 경우 H 는 0에 근사한 값을 갖게 된다. 즉, 市場의 集中度가 높을수록 지수는 1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시장의 집중도가 낮을수록 동지수는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된다. 아래의 표는 허핀달지수 계산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허핀달지수 계산의 보기〉

| 시 장 구 조 | 허 핀 달 지 수 |
|--|--|
| 예 1. 독점 $S_1 = 1$ | $H = (1)^2 = 1$ |
| 예 2. 복점 $S_1 = 0.5, S_2 = 0.5$ | $H = (0.5)^2 + (0.5)^2 = 0.5, 1/H = 2.$ |
| 예 3. $S_1 = 0.333$ $S_2 = 0.333$ $S_3 = 0.333$ | $H = (0.333)^2 + (0.333)^2 + (0.333)^2 \approx 0.333$ $1/H = 3$ |
| 예 4. $S_1 = 0.5$ $S_2 = 0.25$ $S_3 = 0.25$ | $H = (0.5)^2 + (0.25)^2 + (0.25)^2 = 0.375$ $1/H = 2.7$ |
| 예 5. $S_1 = S_2 = \dots = S_N = 1/N$ | $H = (1/N)^2 + \dots + (1/N)^2 = 1/N,$ $1/H = N, \lim_{N \rightarrow \infty} (1/N) = 0$ |

한편 계산된 허핀달지수에 대하여 동수치에 해당하는 동일기업의 갯수는 몇개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즉 市場이 동일기업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기업의 숫자가 몇개일 때 同허핀달지수치가 산출되는가 하는 질문이다. 동기업의 갯수는 허핀달지수의 역수를 취함으로써 얻어진다. 위의 보기의 예 2에서 보듯 허핀달지수가 0.5인 것은 시장이 2개의 동일기업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市場集中度에 상응하는 정도로 시장집중

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IV-3〉은 우리나라의 상품수출, 상품수입, 서비스수출, 서비스수입의 허핀달지수를 각각 시계열로 보여주고 있다. 상품수출입의 허핀달지수는 韓國銀行 調査統計月報에 수출입통계가 발표되는 24개국의 수출입비중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서비스수출입의 허핀달지수는 지역별 점유율이 입수가능한 6~8개 국가의 점유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여타 국가들의 서비스교역 점유율은 1% 이하로서 지수에 대한 기여도가 $(0.01)^2 = 0.0001$ 이하로 극히 작아 지수의 크기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계산된 지수와 실제지수와의 차이는 미미하다.

〈표 IV-3〉에서 먼저 우리나라의 商品輸出入 및 서비스수출입의 허핀달지수 수준을 각각 검토하여 보면 양부문 모두 지역적으로 매우 편중된 去來構造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로서 1988년의 세계 서비스 수입수요의 허핀달 지수는 0.1044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狹義서비스 輸出의 허핀달지수는 0.3822를 기록하여 세계 서비스 수입수요의 지역별 분포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출의 지역별 분포가 더욱 편중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같은 상품수출입과 서비스교역의 지역별 편중은 상호연관된 현상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의 商品交易이 특정 국가(미국, 일본)등에 집중되어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수반하는 운수·여행, 통신 등의 서비스교역도 이들 국가에 편중되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역으로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의 技術 및 經營技法·資本 등의 주요한 도입선의 역할을 함에 따라, 즉 서비스의 主交易相對國의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은 그만큼 이들 국가들의 시장에 대하여 높은 접근성을 가지게 되며 그 결과로서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商品交易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交易先 多邊化政策에서는 이와같은 商品交易과 서비스交易의 연관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IV-3〉에서는 또한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출, 서비스수입의 허핀달

지수가 商品輸出, 商品輸入의 허핀달지수보다 높다는 사실이 확인된다.²¹⁾ 예로서 1989년의 경우 상품수출입은 각각 약 6개의 동일비중의 국가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의 지역별 편중도를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서비스輸出과 서비스輸入은 모두 3~4개의 동일비중국가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의 지역편중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상품수출입의 지역별 집중도가 그간의 交易先 多邊化政策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1980년대중 그 정도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수출입의 지역별 집중도 또한 80년대중 매우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한편 贈與와 投資收益項目을 제외한 협의서비스 수출과 수입의 허핀달지수는 각각 광의 서비스수출과 수입의 허핀달지수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표 IV-3〉 商品 및 서비스交易의 허핀달 지수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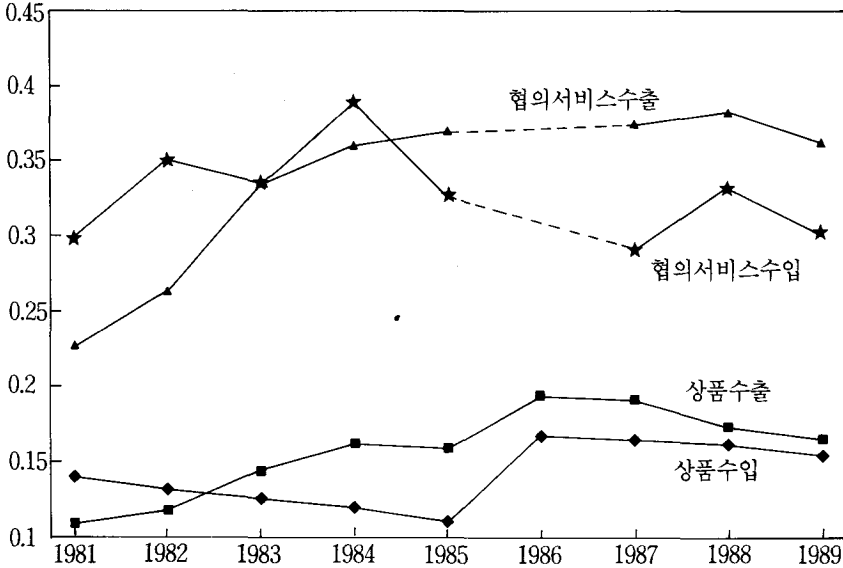
|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
| 상품수출 | 0.1092 | 0.1175 | 0.1438 | 0.1620 | 0.1583 | 0.1927 | 0.1899 | 0.1731 | 0.1647 |
| (X) | (9.2) | (8.5) | (7.0) | (6.2) | (6.3) | (5.2) | (5.3) | (5.8) | (6.1) |
| 상품수입 | 0.1395 | 0.1319 | 0.1255 | 0.1199 | 0.1095 | 0.1672 | 0.1635 | 0.1612 | 0.1543 |
| (M) | (7.2) | (7.6) | (8.0) | (8.3) | (9.1) | (6.0) | (6.1) | (6.2) | (6.5) |
| 광의 | 0.2249 | 0.2581 | 0.3174 | 0.3347 | 0.3371 | 0.3541 | 0.3589 | 0.3611 | 0.3370 |
| 서비스수출 | (4.4) | (3.9) | (3.2) | (3.0) | (3.0) | (2.8) | (2.8) | (2.8) | (3.0) |
| 광의 | 0.3005 | 0.3365 | 0.3175 | 0.3829 | 0.3174 | 0.2720 | 0.2421 | 0.2912 | 0.2741 |
| 서비스수입 | (3.3) | (3.0) | (3.1) | (2.6) | (3.2) | (3.7) | (4.1) | (3.4) | (3.6) |
| 협의 | 0.2272 | 0.2627 | 0.3341 | 0.3612 | 0.3696 | .. | 0.3760 | 0.3832 | 0.3632 |
| 서비스수출 | (4.4) | (3.8) | (3.0) | (2.8) | (2.8) | (.) | (2.7) | (2.6) | (2.8) |
| 협의 | 0.2988 | 0.3511 | 0.3350 | 0.3892 | 0.3260 | .. | 0.2929 | 0.3324 | 0.3024 |
| 서비스수입 | (3.3) | (2.8) | (3.0) | (2.6) | (3.1) | (.) | (3.4) | (3.0) | (3.3) |

* ()내는 허핀달지수의 역수입.

자료 : 한국은행, 외환통계연보 각호에서 계산.

21) 서비스輸出入의 경우 허핀달지수는 상위 6~8개국의 점유비중만을 이용하여 계산함에 따라 실제보다 낮은 수치로 기록되어 있다.

〈圖 IV-1〉 商品과 서비스交易 허핀달지수의 연도별 추이



4. 對美 서비스交易構造

제 4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상대국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서비스交易構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IV-4〉는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전반적인 雙務的 交易關係를 정리한 것이다. 동표는 먼저 미국이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교역상대국으로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비중은 항목별로 4~6%대에 불과한, 비중의 비대칭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비중의 비대칭성이 通商交渉力의 차이로 직결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89년 현재 미국에 대한 광의서비스수출은 우리나라 전체서비스수출의 약 48%

를 점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의 광의서비스 수입 또한 전체서비스수입의 약 48%를 점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은 대체적으로 1980년대 초반에는 완만하게 상승하다 1985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제수지기준의 對美 서비스수입은 1980년대 후반들어 미국의 서비스수출에서의 비중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수입에서의 비중은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않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 外換受給統計를 국제수지기준으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²²⁾ 운수부문의 외환수급통계는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국제수지기준통계로 환산하였다. 먼저 외환수급통계의 운수항목에서 對美交易의 점유율을 구한다(1989년의 경우 운수수입에서는 51.0%, 운수지급에서는 46.0%). 다음으로 대미항로에서의 수출·수입의 국적선적취율이 각각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수입의 국적선적취율과 같다는 가정하에 국제수지의 운수, 보험, 기타운수의 항목에 외환수급통계의 운수항목에서 계산한 對美交易占有率을 곱하여 우리나라의 對美 운수·보험·기타운수 교역액을 추정해내었다.

국제수지의 기타재화 및 용역항목에 대해서도 외환수급통계의 잡용역에서의 對美去來比重을 곱하여 對美 기타재화 및 용역 거래액을 계산해내었다. 이와같이 계산해 낸 국제수지기준의(운수, 보험, 기타운수) 및 (기타재화 및 용역)에 외환수급통계상의 對美 여행거래액을 더하여 국제수지기준의 對美서비스輸出과 對美서비스輸入을 계산하여 <표 IV-4>에 기록한 것이다.²³⁾

22) 미국의 서비스교역통계로서 국제수지통계를 이용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地域別國際收支를 편제하지 않으므로 國際收支를 기준으로 지역별 서비스交易을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작업이다. 작업의 정확도 및 과정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대체적인 구조를 조감하는데는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23) 여행항목의 경우 국제수지통계과 외환수급통계간의 격차가 1%미만이므로 외환수급통계와 국제수지통계간에 호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제 I 장 참조)

이와같이 계산된 국제수지기준통계를 이용하여 미국의 서비스교역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비중을 계산해보면, 미국의 서비스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비중은 수출입 각각 미국의 상품수출과 수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입장에서도 상품교역 부문에서의 우리나라 비중보다 서비스교역 부문에서의 우리나라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동비중은 1980년대 후반에는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여, 미국의 서비스교역 상대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⁴⁾

對美 서비스거래의 부문별 구성을 보면 對美 서비스輸出入에서 차지하는 해외여행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먼저 눈에 띈다. 즉 對美 해외여행거래는 수출입 모두 1981년에는 전체 對美外換去來의 7%수준에 불과했으나 1989년에는 각각 對美 外換受入 및 支給의 21% 및 24%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對美 해외여행지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89년에는 對美 해외여행의 적자가 약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와같은 해외여행지급의 빠른 증가는 對美交易의 증가 뿐 아니라 80년대 후반에 해외여행규제가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對美 서비스交易收支는 국제수지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흑자기조를 유

24) 제 2절에서 분석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결합도와 미국 서비스수입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비중 및 세계 서비스수출·수입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비중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성립한다.

제 2절의 정의로부터,

$$\begin{aligned} E_{ij} &= (X_{ij}/X_i) / (M_j/(M_w - M_i)) \quad (\text{단, } i \text{는 우리나라, } j \text{는 미국을 지칭함}) \\ &= (X_{ij}/M_j) / (X_i/(M_w - M_i)) \\ &= [(X_{ij}/M_j) / (X_i/M_w)] [(M_w - M_i) / M_w] \end{aligned}$$

그런데 $M_w = X_w$ (세계 총수출)이므로

$$E_{ij} = [(X_{ij}/M_j) / (X_i/X_w)] [1 - M_i / M_w]$$

즉 대미수출결합도 = $\frac{\text{미국서비스수입에서의 우리나라 비중}}{\text{세계서비스수출에서의 우리나라 비중}}$ (1 - $\frac{\text{세계서비스수입중 우리나라 비중}}{\text{우리나라 비중}}$)

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對美 서비스교역구조는 서비스교역부문에서 새로운 韓-美間 通商問題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對美 경제교역구조를 파악하고 통상 및 외환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상품교역 뿐 아니라 서비스교역구조까지도 포괄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대상국 내지는 자본도입국으로서의 미국의 비중이 점감함에 따라 투자수익의 수입과 지급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거래부문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미국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對美 잡용역거래는 수출·수입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對美서비스去來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잡용역거래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4〉

部門別 對美交易 推移

(단위 : 백만불, %)

|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
| 대미 상품 수출(X) | 5660.6 | 6243.2 | 8245.4 | 10478.8 | 10754.1 | 13880.0 | 18310.8 | 21404.1 | 20639.0 |
| (우리나라수출에서의비중)(%) | 26.6 | 28.6 | 33.7 | 35.8 | 35.5 | 40.0 | 38.7 | 35.3 | 33.1 |
| (미국 수입에서의 비중)(%) | 2.1 | 2.5 | 3.1 | 3.2 | 3.2 | 3.8 | 4.5 | 4.8 | 4.3 |
| 대미 상품 수입 (M) | 6049.7 | 5955.8 | 6274.4 | 6875.5 | 6489.3 | 6544.7 | 8758.2 | 12756.6 | 15910.7 |
| (우리나라수입에서의비중)(%) | 23.2 | 24.6 | 24.0 | 22.4 | 20.8 | 20.7 | 21.4 | 24.6 | 25.9 |
| (미국 수출에서의 비중)(%) | 2.6 | 2.8 | 3.1 | 3.1 | 3.0 | 2.9 | 3.5 | 4.0 | 4.4 |
| 국제수지기준대미서비스수출* | 1805.4 | 2836.0 | 3396.5 | 3513.9 | 3113.3 | 3717.5 | 4629.2 | 5099.9 | 4940.0 |
| (우리나라수출에서의비중)(%) | 30.7 | 41.7 | 51.5 | 53.3 | 53.0 | 51.4 | 50.1 | 49.9 | 45.1 |
| (미국 수입에서의 비중)(%) | 5.5 | 8.5 | 9.3 | 7.0 | 5.7 | 6.2 | 6.8 | 6.8 | 6.3 |
| 국제수지기준대미서비스수입* | 2147.4 | 2192.4 | 2144.4 | 2400.7 | 2200.5 | 2252.4 | 2647.4 | 3694.9 | 4960.4 |
| (우리나라수입에서의 비중)(%) | 48.1 | 52.2 | 51.1 | 56.5 | 53.2 | 48.3 | 48.3 | 53.3 | 52.3 |
| (미국 수출에서의 비중)(%) | 4.7 | 4.7 | 4.6 | 4.3 | 3.8 | 3.2 | 3.3 | 4.0 | 4.7 |
| 국제수지기준 서비스수출* | 5585.3 | 6795.4 | 6597.5 | 6597.2 | 5870.5 | 7239.3 | 9244.6 | 10223.4 | 10961.6 |
| 국제수지기준 서비스수입* | 4466.0 | 4199.2 | 4192.4 | 4245.5 | 4133.1 | 4659.0 | 5479.9 | 6936.1 | 9486.3 |

* 운수, 기타운수, 여행, 기타재화 및 용역의 합계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US Dept. of Commerce, *Survey of Current Business* (1990.6)

〈표 IV-5〉

對美 서비스교역 추이(外換受給基準)

(단위 : 백만불, %)

|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
| 수출 | | | | | | | | | |
| 해외여행 | 174.7 (39.0) | 257.2 (51.2) | 288.0 (48.3) | 358.3 (53.2) | 391.0 (49.9) | 647.4 (41.8) | 900.7 (39.2) | 1187.5 (36.4) | 1277.4 (35.9) |
| 운 수 | 785.0 (51.7) | 958.5 (57.2) | 1291.6 (76.9) | 1290.8 (71.8) | 1010.7 (65.1) | 929.1 (58.7) | 1089.6 (56.1) | 1214.8 (51.9) | 1315.9 (51.0) |
| 정부거래 | 340.8 (96.7) | 401.1 (95.8) | 478.8 (98.2) | 524.7 (98.3) | 527.6 (97.3) | 692.3 (98.1) | 821.9 (96.8) | 856.3 (95.6) | 944.3 (95.8) |
| 잡 용 역 | 458.0 (16.4) | 1004.3 (30.9) | 991.9 (34.8) | 1112.4 (40.4) | 1046.6 (45.5) | 1348.1 (51.0) | 1690.1 (52.4) | 1689.5 (57.4) | 1298.1 (45.2) |
| 협의서비스수출 합계 | 1781.7 (34.5) | 2638.1 (44.8) | 3064.5 (54.0) | 3308.1 (56.9) | 2995.6 (57.5) | 3646.0 (55.8) | 4551.7 (54.2) | 4982.0 (52.4) | 4882.7 (48.4) |
| 광의서비스수출 | 2390.7 (37.8) | 3216.6 (45.5) | 3613.2 (52.9) | 3893.3 (54.9) | 3651.0 (55.0) | 4565.3 (54.3) | 5465.9 (52.4) | 6096.8 (50.4) | 6139.1 (47.5) |
| 수입 | | | | | | | | | |
| 해외여행 | 275.2 (62.7) | 409.7 (64.8) | 372.9 (67.1) | 410.0 (71.1) | 418.4 (69.0) | 415.9 (67.8) | 449.5 (63.9) | 851.8 (62.9) | 1525.5 (58.6) |
| 운 수 | 1073.4 (55.6) | 1056.7 (59.4) | 967.2 (57.2) | 952.4 (57.0) | 915.3 (53.3) | 960.2 (49.8) | 1061.2 (44.9) | 1315.4 (47.2) | 1467.8 (46.0) |
| 정부거래 | 156.0 (84.1) | 137.2 (95.2) | 128.7 (92.9) | 100.6 (89.4) | 112.0 (88.0) | 126.0 (81.3) | 134.4 (82.5) | 131.6 (75.2) | 104.7 (50.1) |
| 잡 용 역 | 463.7 (35.8) | 409.7 (37.8) | 531.1 (39.8) | 698.5 (51.5) | 832.7 (47.4) | 966.0 (40.0) | 876.6 (45.6) | 1309.1 (52.5) | 1582.4 (50.6) |
| 협의서비스수입 합계 | 1997.0 (50.7) | 2054.5 (55.0) | 2051.2 (53.6) | 2204.8 (57.7) | 2344.6 (54.1) | 2544.4 (48.5) | 2569.7 (48.9) | 3674.0 (52.9) | 4734.9 (51.0) |
| 광의서비스수입 | 3937.4 (52.1) | 4213.1 (55.6) | 3848.6 (53.5) | 4728.8 (60.0) | 4474.3 (53.1) | 4473.2 (47.7) | 4140.4 (46.3) | 5067.4 (48.9) | 6378.7 (48.2) |

* ()내는 해당 항목별 미국의 점유율(%)

자료 : 한국은행, 외환통계연보 각호.

5. 對日 서비스交易構造

일본은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 2의 서비스교역상대국으로서 특히 1980년대 후반중 그 비중이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 및 일본의 서비스교역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비중이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즉,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중 對日 서비스수출의 비중 및 일본의 서비스수입에서의 對韓 서비스수입의 비중은 1981년 각각 16.8% 및 2.7%에서 1989년에는 각각 38.0% 및 5.1%로 높아졌다. 對日 서비스수입의 경우는 동비중이 각각 15.8% 및 2.9%에서 20.5% 및 4.6%로 높아졌다. 그러나 서비스교역과 상품교역의 상대적 비중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상품교역국으로서의 상대국의 비중이 서비스교역국으로서의 상대국의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미간 通商關係와는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⁵⁾

對日 서비스교역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그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對日 상품교역의 적자를 상당부분 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對日 서비스수출의 주종은 관광으로서 1989년의 경우 대일서비스수출의 약 51%를 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對日 서비스교역의 항목중 특히 주목되는 항목은 잡용역거래부문으로서 對日去來의 비중은 수출·수입 모두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즉 일본이 해외여행 이외의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 상대국으로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음을

25) 對日 서비스교역비중이 對日 상품교역비중보다 작은 것은 다음의 두가지 요인에 의한다고 추정된다. 먼저, 일본의 교역구조가 전세계 평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품교역비중이 큰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도 상품교역비중이 서비스교역비중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가 對日 서비스교역에 여러가지 제약을 가한 결과(예로서 일본음반, 비디오테이프 및 영화의 수입금지) 對日 서비스교역이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여주고 있다.

한편 외환거래항목중 투자수익 受入 및 支給에서 접하는 일본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對日 서비스교역은 그 비중이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관련 對韓直接投資에서는 이미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4~5년 이내의 가까운 장래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에서 미국과 비등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6>

部門別 對日交易 推移

(단위 : 백만불, %)

|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
| 대일 상품 수출(X) | 3502.8 | 3388.1 | 3403.6 | 4602.2 | 4543.4 | 5425.7 | 8436.8 | 12004.1 | 13456.8 |
| (우리나라수출에서의 비중)(%) | 16.5 | 15.5 | 13.9 | 15.7 | 15.0 | 15.6 | 17.8 | 19.8 | 21.6 |
| (일본 수입에서의 비중)(%) | 2.7 | 2.8 | 3.0 | 3.7 | 3.8 | 4.8 | 6.6 | 7.3 | 7.0 |
| 대일 상품 수입(M) | 6373.6 | 5305.3 | 6238.4 | 7640.1 | 7560.4 | 10869.3 | 13656.6 | 15928.9 | 17448.6 |
| (우리나라수입에서의 비중)(%) | 24.4 | 21.9 | 23.8 | 24.9 | 24.3 | 34.4 | 33.3 | 30.7 | 28.4 |
| (일본 수출에서의 비중)(%) | 4.3 | 3.9 | 4.3 | 4.5 | 4.3 | 5.3 | 6.1 | 6.1 | 6.5 |
| 국제수지기준대일서비스수출* | 988.8 | 987.1 | 917.0 | 1045.0 | 1141.3 | 1897.0 | 2706.1 | 3490.0 | 4166.0 |
| (우리나라수출에서의 비중)(%) | 16.8 | 14.5 | 13.9 | 15.8 | 19.4 | 26.2 | 29.3 | 34.1 | 38.0 |
| (일본 수입에서의 비중)(%) | 2.7 | 2.9 | 2.7 | 3.0 | 3.2 | 4.9 | 5.1 | 5.0 | 5.1 |
| 국제수지기준대일서비스수입* | 704.2 | 662.7 | 654.1 | 712.5 | 743.6 | 915.8 | 1256.1 | 1591.5 | 1948.1 |
| (우리나라수입에서의 비중)(%) | 15.8 | 15.8 | 15.6 | 16.8 | 18.0 | 19.7 | 22.9 | 22.9 | 20.5 |
| (일본 수출에서의 비중)(%) | 2.9 | 2.9 | 3.0 | 3.0 | 3.2 | 3.7 | 4.1 | 4.3 | 4.6 |
| 대일상품수지 | -2870.8 | -1917.2 | -2834.8 | -3037.9 | -3017.0 | -5443.6 | -5219.8 | -3924.8 | -3991.8 |
| 대일서비스수지 | 284.6 | 324.4 | 262.9 | 332.5 | 397.7 | 981.2 | 1450.0 | 1898.5 | 2217.9 |

* <표 IV-4>와 같은 기준으로 편제

資料: 日本銀行, 國際收支統計月報(1990. 4)

〈표 IV-7〉

對日 서비스交易 推移(外換受給 기준)

(단위: 백만불, %)

|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
| 서비스수입 | | | | | | | | | |
| 해외여행 | 247.8 (55.3) | 212.9 (42.4) | 283.2 (47.5) | 292.0 (43.4) | 368.6 (47.0) | 858.6 (55.5) | 1326.6 (57.7) | 1952.8 (59.8) | 2158.8 (60.7) |
| 운 수 | 349.8 (23.1) | 350.9 (21.0) | 232.9 (13.9) | 326.8 (18.2) | 267.5 (17.2) | 351.1 (22.2) | 493.2 (25.4) | 586.0 (25.0) | 592.2 (23.0) |
| 잡 용 역 | 215.3 (7.7) | 223.2 (6.9) | 236.5 (8.3) | 245.3 (8.9) | 317.3 (13.8) | 417.1 (15.8) | 533.6 (16.6) | 561.1 (19.1) | 831.2 (29.0) |
| 협의 서비스수입합계 | 823.5 (16.0) | 805.3 (13.7) | 763.5 (13.5) | 871.8 (15.0) | 958.1 (18.4) | 1631.4 (25.0) | 2369.6 (28.2) | 3116.0 (32.8) | 3602.8 (35.7) |
| 광의서비스 수입 | 1001.1 (15.8) | 955.9 (13.5) | 927.7 (14.8) | 1028.2 (14.5) | 1144.9 (17.2) | 1981.2 (23.6) | 2977.1 (28.5) | 3927.4 (32.4) | 4254.2 (32.9) |
| 서비스 수출 | | | | | | | | | |
| 해외여행 | 107.4 (24.5) | 147.9 (23.4) | 122.1 (22.0) | 113.4 (19.7) | 122.8 (20.3) | 127.0 (20.7) | 160.2 (22.7) | 317.9 (23.5) | 413.5 (15.9) |
| 운 수 | 402.0 (20.8) | 310.8 (17.4) | 301.0 (17.8) | 357.4 (21.4) | 412.0 (24.0) | 539.3 (28.0) | 674.2 (28.6) | 772.5 (27.7) | 834.3 (26.2) |
| 잡 용 역 | 95.1 (7.8) | 103.0 (10.6) | 139.8 (11.3) | 138.2 (11.2) | 183.4 (10.4) | 219.6 (9.1) | 281.2 (14.6) | 390.2 (15.6) | 509.6 (16.3) |
| 협의 서비스수출합계 | 619.1 (15.7) | 570.4 (15.3) | 575.6 (15.0) | 621.7 (16.3) | 739.9 (17.1) | 907.5 (17.3) | 1143.2 (21.7) | 1521.7 (21.9) | 1804.5 (19.4) |
| 광의서비스 수출 | 933.7 (12.3) | 866.6 (11.4) | 873.8 (12.1) | 959.4 (12.1) | 1145.9 (13.6) | 1530.9 (16.3) | 1837.0 (20.5) | 2187.6 (21.1) | 2462.9 (18.6) |

* () 내는 해당 항목별 일본의 점유율(%).

6. 對其他地域 서비스交易構造

미국·일본 이외의 기타지역으로부터의 서비스수입은 전체 서비스수입 신장세와 비슷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타지역으로부터의 서비스수입이 전체 서비스輸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기타지역에 대한 서비스수출은 80년대 중 절대규모 자체가 감소하는 등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狹義서비스 기준으로 1981년의 49.5%에서 1989년에는 15.9%로 낮아졌다. 이는 주로 중동지역에 대한 건설용역수출이 80년대 들어 크게 부진했기 때문이다. 기타지역에 대한 狹義 서비스交易의 부문별 구조를 對美 및 對日서비스 교역구조와 비교해 보면 對美 및 對日 서비스交易에 비하여 잠용역의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기타지역에 대한 운수수출과 수입은 전체적인 운수수출 수입과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타지역에 대한 서비스교역수지는 1980년대 초반에는 黑字를 기록하였으나 1986년부터는 적자로 반전하였으며 적자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對美 및 對日 서비스交易收支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는 추세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겠으며, 향후 지역별 경상수지 조정대책 등을 세울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對 기타지역 서비스交易收支

| | (백만불) | | | | | | |
|-------|--------|--------|--------|---------|--------|---------|---------|
| | 1981 | 1983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 협의서비스 | 1227.1 | 646.6 | 0.9 | -536.7 | -68.9 | -332.8 | -1131.3 |
| 광의서비스 | 245.6 | -184.8 | -963.9 | -1531.6 | -976.5 | -1023.6 | -1851.1 |

〈표 IV-8〉

對其他地域 서비스交易推移

(단위 : 백만불, %)

|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
| 서비스수출 | | | | | | | | | |
| 해외여행 | 25.1 (5.6) | 32.2 (6.4) | 25.0 (4.2) | 23.1 (3.4) | 24.7 (3.1) | 41.5 (2.7) | 71.9 (3.1) | 124.9 (3.8) | 120.2 (3.4) |
| 운 수 | 382.5 (25.2) | 365.4 (21.8) | 155.2 (9.2) | 181.3 (10.0) | 274.4 (17.7) | 302.2 (19.1) | 358.3 (18.5) | 538.6 (23.1) | 672.1 (26.0) |
| 잡 용 역 | 2125.8 (75.9) | 2019.3 (62.2) | 1622.9 (56.9) | 1399.1 (50.7) | 935.7 (40.7) | 878.6 (33.2) | 999.3 (31.0) | 692.7 (23.5) | 740.4 (25.8) |
| 협의 서비스수출합계 | 2553.1 (49.5) | 2439.4 (41.5) | 1845.0 (32.5) | 1637.9 (28.1) | 1251.9 (24.1) | 1253.5 (19.2) | 1478.3 (17.6) | 1415.7 (14.8) | 1612.1 (15.9) |
| 광의서비스 수출 | 2936.7 (46.4) | 2895.4 (41.0) | 2290.6 (33.5) | 2174.0 (30.6) | 1841.5 (27.7) | 1850.3 (22.0) | 1987.6 (19.1) | 2083.3 (17.2) | 2535.6 (19.6) |
| 서비스수입 | | | | | | | | | |
| 해외여행 | 56.4 (12.8) | 74.6 (11.8) | 60.4 (10.9) | 52.9 (9.2) | 64.8 (10.7) | 70.1 (11.4) | 94.5 (13.4) | 184.2 (13.6) | 662.4 (25.5) |
| 운 수 | 455.3 (23.6) | 412.8 (23.2) | 423.5 (25.0) | 362.2 (21.7) | 390.2 (22.7) | 427.7 (22.2) | 624.8 (26.5) | 698.1 (25.1) | 888.2 (27.8) |
| 잡 용 역 | 735.8 (56.8) | 572.3 (52.7) | 664.5 (49.8) | 519.8 (38.3) | 741.1 (42.2) | 1231.7 (51.0) | 763.4 (39.7) | 795.0 (31.9) | 1037.1 (33.1) |
| 협의 서비스수입합계 | 1326.0 (33.6) | 1108.9 (29.7) | 1198.4 (31.3) | 992.2 (26.0) | 1251.0 (28.9) | 1790.2 (34.2) | 1547.2 (29.4) | 1748.5 (25.2) | 2743.4 (29.6) |
| 광의서비스수입 | 2690.5 (35.6) | 2493.3 (32.9) | 2475.4 (34.4) | 2237.2 (28.2) | 2805.4 (33.3) | 3381.9 (36.0) | 2964.1 (33.1) | 3106.9 (30.0) | 4386.7 (33.2) |

* () 내는 각 항목별 기타지역의 점유율(%)

V. 研究結果의 요약과 示唆點

1. 研究結果의 요약

本 研究에서는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 및 서비스관련 직접투자의 1970년대 이후 推移와 部門別 地域別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우리나라의 서비스 交易規模는 상품교역의 약 1/5에 해당하며 기간중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세계 서비스교역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비중을 상품교역에서의 우리나라 비중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交易規模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商品交易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교역의 약 1.9%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서비스교역에서는 세계교역의 약 1.3-1.4%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의 증가가능성이 상품교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우 모두 우리나라와 같이 商品交易比重이 서비스교역 비중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이 서비스교역에서는 상품교역과 같은 현저한 신장세를 기록하지 못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수출에 비하여 서비스수입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서비스수입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 交易規模의 확대와 함께 서비스교역의 부문별 구조도 기간중 크게 변화하였다. 서비스수출에서는 중동건설 경기의 부침을 반영하여 잡용역의 수출이 1970년대중 급증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서는 정체되고 있다. 서비스수입에서는 해외여행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눈에 띈다. 政府去來의 상대적 비중은 서비스수출과 수입 양측에서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정점유율 분석방법에 의하여 1980년대중 서비스수출의 신장요인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신장세가 세계 서비스수입수요증가세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출이 세계적 추세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 수입수요확대효과 이외에 輸出市場 地域構成效果가 서비스 수출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서비스 수출선인 미국 및 일본의 서비스 輸入需要가 기간중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비스수출부문 구성효과 및 競爭力 效果는 서비스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관련 直接投資構造를 살펴보면 서비스관련 직접투자의 규모가 서비스 거래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은 직접투자를 통한 간접적 교역보다는 직접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출이 수입보다 큰 서비스교역과는 달리 서비스관련 직접투자의 유입이 우리나라의 對外直接投資流出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交易과 관련한 직접투자의 중요성은 매우 크며 세계적으로도 직접투자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관련 직접투자의 절대규모는 아직 미미한 실정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접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直接投資 流入額이 대외 직접투자 유출액보다 지속적으로 큰 사실은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이 그만큼 國際競爭力이 약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商의 결과로 서비스관련 直接投資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본격적인 직접투자유입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겠다. 한편 직접투자의 유입초과는,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에서 발생하는 貿易外收支黑字가 상당부분 규제에 의한 인위적인 黑字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서비스관련 대한 직접투자의 국별 구성에 있어서는 미국과 일본등에 대한 지역별

편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일본이 서비스交易에서와 같이 미국의 비중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交易의 지역별 구성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서비스교역국가간의 서비스교역 점유율과 상품교역점유율간에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수출결합도 지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선과 우리나라와의 상대적인 시장의존도를 측정된 결과 서비스交易比重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와 긴밀한 시장의존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미국과 일본과는 매우 긴밀한 의존관계에 있는 것이 드러났다. 지역별 편중도에 있어서는 서비스교역이 상품교역보다 더욱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비스교역에서의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압도적이며 이들 양국을 합한 비중은 서비스수출의 경우 약 80%, 수입의 경우는 약 65%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韓·美間 交易에서는 서비스교역국으로서의 상대국의 비중이 상품교역국으로서의 비중보다 높은데 비하여 韓·日 交易에서는 상품교역국으로서의 비중이 서비스交易國으로서의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비중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인데 비하여 일본의 비중은 80년대중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서비스去來의 對日依存度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示唆點

이제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추가연구 방향 및 政策的 示唆點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상품교역부문에 비하여 서비스교역부문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므로 이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對外交易構造 分析은 실물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교역 부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서비스交易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서비스교역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서비스交易이 우리경제의 발전에 필수적인 先進技術의 導入 및 필수 불가결한 정보의 입수등 경제발전의 촉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 교역에 대한 경제학자 및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이 크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교역에 대한 기초연구의 중요성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과도 관련지어 이해되어질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商이 타결될 경우 서비스교역 및 서비스관련 직접투자에 대한 각국의 각종규제는 크게 완화될 것이며 이에따라 서비스交易과 서비스관련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학계 및 정부에서도 이와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의 내용을 파악하거나 해운, 건설, 금융등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영향을 받게되는 특정서비스 교역부문에 제한되어 있고 서비스교역전체를 조감하는 연구는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서비스교역의 지역별 구성, 부문별 구조 및 직접투자와의 관계,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本 研究의 가장 큰 공헌은 그러한 문제의 소재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촉구하였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서비스교역 관련통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本 研究에 있어서 서비스교역통계는 주로 國際收支統計와 外換受給統計에 의존하였으나 각각 편제체제가 달라 상호비교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나치게 통합되어 있어 세부항목에 대한 연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는 서비스交易構造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서비스교역 통계가 편제되고 발표되어야 할 것이며 地域別 經常收支 등의 통계도 공식적으로 편제 발표하여 서비스교역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해야할 것이다.

세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과 서

비스관련 직접투자의 地域多邊化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이다. 그 간 우리나라의 상품수출입이 특정지역에 집중됨으로써 國際交易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通商摩擦의 요인이 된 동시에 우리나라의 통상교섭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商品輸出入의 지역별 편중은 서비스교역의 지역별 편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기술도입선 및 정보 서비스거래 등이 특정국가에 집중됨으로써 서비스교역의 지역편중이 다시 商品交易의 지역편중으로 연결되기도 하였으며 반대로 상품교역이 일부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상품의 운반, 유통등과 관련된 서비스교역이 일부지역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비스부문(상품부문)의 地域多邊化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상품(서비스)교역부문만의 지역다변화 노력은 그만큼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對外去來의 지역별 다변화를 꾀함에 있어서는 실물부문의 지역별 다변화와 서비스 교역부문의 지역별 다변화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네번째 示唆點으로는 세번째 시사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교역대상국으로서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 및 양국간의 비중의 변화추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미국과 일본이 상품수출입에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교역상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서비스交易部門에서의 양국의 비중은 상품수출입에서의 비중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對韓直接投資에서 차지하는 양국의 비중도 상품수출입에서의 양국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美·日間の 비중의 추이를 보면 서비스교역에서는 제 1교역상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치가 일본에 의해 추격당하는 상태이며 서비스관련 직접투자에서는 이미 일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서비스교역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이와같은 국가간 구성비의 변화추이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서비스 市場開放에 의한 서비스교역 증가분이 특정국가에 집중됨으로써 다시 서비스교역 및 상품교역의 지역별 편중도가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서비스수입은 여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으며 이러한 수입수요증가세의 격차가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선의 다변화를 저해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예로서 상대적으로 수입수요 증가세가 빠른 미국 일본지역에 대한 서비스수출의 상대적 증가로 인하여 서비스수출의 지역적 편중도는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다섯번째로, 國際收支管理의 측면에서 서비스교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서비스교역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여 經常收支改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80년대중 흑자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적자로 반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래의 國際收支管理에 있어서는 상품교역뿐 아니라 서비스교역 부문도 포괄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특정국가와의 서비스교역부문에서 지속적으로 赤字를 기록할 경우 同部門에서 通商摩擦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부문의 흑자가 상당부분 인위적인 규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규제에 대한 교역상대국의 철폐요구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역으로 서비스교역의 규제철폐를 상품교역부문에서의 통상마찰과 연계하여 운용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國 文〉

- 민경휘 외, 서비스産業의 成長과 構造變化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 92호), 1987.
- 박태호, 우루과이라운드(UR)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 90-02), 1990. 4.
- 유재원, ASEAN 주요국의 貿易·産業政策과 投資環境 變化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0-06), 1990. 9.
- 이영선, 우리나라 輸出商品의 比較優位 分析과 展望 (국제경제연구원), 1980.
- 장의태, 多者間 서비스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産業의 國際化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0-09), 1990. 10.
- 재무부, 外國人 投資動向 (1990. 9)
- 한국은행, 調查統計月報 各호
- , 外換統計年報 各年호
- , 産業聯關表, 1975, 1980, 1985.
- , 1975-1980-1985년 積속불변산업연관표, 1989.
- ,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1990.
- , 海外投資統計年報, 1990.

〈外 國 語〉

- 日本銀行, 國際收支統計月報, 1990. 4.
- M. Ariff and H. Hill,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 The ASEAN Experience*(Allen and Unwin), 1985.

- G. Feketekuty,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 An Overview and Blueprint for Negotiations*, Ballinger Publishing Co., 1988.
- GATT, *International Trade*, 87-88, 88-89.
- , *Press Release*(1990. 3. 14)
- William H. Greene, *Econometric Analysis*, Macmillan Publishing Co., New York, 1990.
- T. P. Hill, "On Goods and Servic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9. No. 4. 1977.
- IMF, *Balance of Payments Manual*, 1977.
- ,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Yearbook 1989*.
- ,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 Chungsoo Kim, *Services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KIET, 1989. 10.
- Stephen Martin, *Industrial Economics*, Macmillan Publishing Co., 1988.
- S. Park and K. S. Chan, "A Cross-Country Input-Output Analysis of Intersectoral Relationships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s and their Employment Implications", *World Development*, Vol. 17. No. 2, 1989.
- US, Department of Commerce, *Survey of Current Business*, 1990. 6.
- U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 in Services*, 1989.

著者 略歴

李 相 學

1980. 2 서울대학교 經濟學科 卒業
1989. 9 미국 뉴욕주립대학(버팔로) 經濟學 博士
1980. 1~1985. 7 韓國銀行 勤務
1989. 9~1990. 6 뉴욕주립대학(버팔로) Research Instructor
1990. 7~1991. 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責任研究員
1991. 3~ 國民大學校 貿易學科 助教授

政策研究 91-08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1991年 4月 27日 印刷

1991年 4月 30日 發行

發行人 金 迪 教

發行人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서울特別市 江南區 大峙3洞 942番地 해성빌딩 18-19층

電話 : 519-3333, FAX : 519-3311, 3322.

登錄 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刷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값 3,000원